

# 제4장 근 세

## 제1절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행정체제

### 1. 영일만권의 행정체제 변천

조선왕조는 고려왕조 때의 민족 내부의 사회적 모순과 빈번하고 강력하였던 외세침입의 시련을 극복하고 성립되었다. 조선은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지배층의 재구성과 확대, 성리학의 수용, 관료사회로의 지향, 민본의식의 성장 및 민족문화의 확산 등의 진보된 형태로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종합적 통치규범을 체계화한 《경국대전》에 반영된 정치사상은 유교적 민본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민본정치는 권력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전제화 되는 것을 배격하며, 중인의 지혜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통치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통치조직은 권력의 균형과 기능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전 시대보다 한걸음 더 발전 되었다.

관제는 크게 동반(문관직)과 서반(무관직)으로 나뉘고, 동·서반은 다시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 나뉘는데, 모두 정1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18품계가 있었다.

지방 통치체제는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영안(永安, 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부윤(종2품)·대도호부사(정3품)·목사(정3품)·도호부사(종3품)·군수(종4품)·현령(縣令, 縣監, 종6품)등의 수령을 통할 감독하였다.

각 지방의 행정단위에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房)이 있어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토착의 아전, 즉 향리들이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경상도의 도정을 총괄하는 감사가 소재하는 감영은 조선 초에 경주에 있다가 태종 8년(1408)에 상주로 옮기게 되었고, 경주는 계림부로 부르다가 태종 15년(1415) 지방제도 개편시 경주부로 고쳤으며 영일만권의 각 고장은 경주부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경주부는 부계의 수관(首官)으로서 밀양·대구·청도·양산·흥해·울산·영일·장기·기장·동래·언양·경산·현풍·창녕·영산·청하를 두고, 흥해·울산·양산·영

천·영일·장기·청하·기장·동래·언양을 부의 주진(主鎭)으로, 안강현·기계현·신광현·자인현 4고을을 입내로, 죽장·성법(省法伊)·북안곡·구사 등 4 부곡(部曲)을 관할하였다. 조선 초기 영일만권의 지방관제는 다음 표와 같다.

영일만권의 지방관제

고 장 명	각 고장의 관제
흥 해 군	조선초 지방관제의 개편시에도 그대로 군으로 존속되어 군수(중 4품)가 다스렸다.
영 일 현	태종 17년(1417) 큰 진을 설치하여 병마사(정 3품)가 지현사(知縣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1423)에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 조선 때 각 읍의 수령이 겸임하던 군사직, 중 3품)로 개칭하였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장 기 현	태종 15년(1415)에 지형이 바다와 접했다 해서 무신 가운데 벼슬이 높은 자만을 임명하여 진수케 하다가 드디어 지현사(4품 이상)를 두었고, 뒤에 다시 현감(중 6품)으로 고쳐 두었다.
청 하 현	태조 원년(1392)에 감무(監務)를 두어 주현이 되었으며, 후에 현감을 두었다.
기계현과 신광현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경주부의 속현(屬縣 : 任內)이 되었다.
죽장현과 성법	조선시대 초기에 죽장(竹長)부곡은 죽장현으로 승격되고, 성법(省法)부곡은 기계현에 편입되어 모두 경주부의 입내가 되었다.

표에 나타난 8개 고을의 행정구역은 세종 7년(1425)의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난 각 고을과의 경계지점과 그 리수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흥해군** : 동쪽으로는 바닷가와와는 11리 300보의 거리, 남쪽으로 경주의 입내 안강현과의 경계인 화이현(火伊峴)과는 23리 226보의 거리, 동쪽으로 영일현의 경계인 여을천(餘乙川)과는 15리의 거리, 서쪽으로는 경주의 입내 신광현과의 경계인 장좌리(長佐里)와는 7리 70보의 거리, 북쪽으로는 청하현과의 경계인 편내현(片乃峴, 현 별래재)과는 10리 40보의 거리에 있다.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난 거리기록은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로망에 따른 거리[道里]이다. 따라서 당시 도로망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척도마저 혼란스러워 오늘날의 미터법에 의한 정확한 거리를 산출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1리는 360보, 1보는 6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0리는 현재의 6.48km에 해당한다.

**영일현** : 동쪽으로 동을배곶(冬乙背串)과는 35리의 거리이며, 장기현과의 경계인 모이현(毛伊峴)과는 18리 140보의 거리, 남쪽으로 경주부와의 경계인 행점(杏岾)과는 10리 71보의 거리, 서쪽으로 안강현과의 경계인 주을명동(注乙明洞)과는 10리 120보의 거리, 북쪽으로 흥해군과의 경계인 여을천과는 14리 202보의 거리에 있다.

**장기현** : 동쪽으로 큰 바다와는 5리 310보의 거리이며, 남쪽으로 경주부와의 경계인 적석산(赤石山)과는 13리 167보의 거리, 서쪽으로 영일현과의 경계인 모이현과는 18리 260보의 거리, 북쪽으로 영일현과의 경계인 동을배곶과는 45리 300보의 거리에 있다.

**청하현** : 동쪽으로 해변과는 6리의 거리이며, 남쪽으로 흥해군과의 경계인 변내현(邊內峴 : 현 별래재)과는 8리 120보의 거리, 서쪽으로 경주 임내 신광현과 경계인 여현(餘峴)과는 9리 77보의 거리, 북쪽으로 영덕현과의 경계인 회동(會洞)과는 14리 240보의 거리에 있다.

**기계현** : 동쪽으로 안강현과의 경계인 다질천(多叱川)과는 6리 230보의 거리이며, 남쪽 북안곡 부곡(北安谷部曲)의 곡조을현(曲阜乙峴)과는 10리의 거리, 서쪽으로 죽장부곡의 대현(大峴)과는 15리 200보의 거리, 북쪽으로 신광현과의 경계인 와항고개(瓦項古介)와는 5리의 거리에 있다.

**신광현** : 동쪽으로 흥해군과의 경계인 범촌천(凡村川)과는 10리의 거리, 남쪽으로 기계현과의 경계인 무둔현(無菴峴)과는 15리 300보의 거리, 서쪽으로 성법부곡의 비학산과는 15리의 거리, 북쪽으로 청하현과의 경계인 여현과는 15리의 거리에 있다.

**죽장부곡** : 경주부의 북쪽 110리의 거리에 있고, 청송(靑松)과 경계에 있다.

**성법이부곡(法伊部曲)** : 경주부의 북쪽 51리의 거리에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 영일만권의 행정체제는 외관이 파견되는 주군현(主郡縣)은 4곳(흥해군·영일현·장기현·청하현), 주읍에 종속되어 있는 속현(屬縣)은 2곳(기계현·신광현), 그리고 부곡(部曲) 2곳(죽장부곡·성법이부곡) 등으로 편성되었다.

주현·속현·부곡 등의 칭호는 거기에 거주하는 호족세력의 대소강약과 주민신분의 고하에 따라 결정되었다.

고려 초의 이러한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편성의 군현제도는 중기 이후 서서히 변모하여 마침내 여말선초(麗末鮮初) 중앙집권이 강화될 때 본격적인 개혁과 정비를 통해 ①속현의 주현화, ②임내(任內)의 이속(移屬), ③임내의 병합 ④임내의 혁파로 인한 직촌화(直村化)가 이루어졌다.

속현과 향·소·부곡 등 소위 임내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는 있으나 보통 주현의 관할 구역 내 즉 관내(管內)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속현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현을 위시하여 향·소·부곡 등을 포함한 광의로 해석되기도 한다. 임내는 아직 직촌화하지 않고 주현(主縣) 관내에 독자적인 구역을 보유하면서 그

곳 장리(長吏)를 통하여 주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임내는 구 신라 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부곡은 경상도 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 이래 토착세력이 강하여 중앙집권화의 침투가 느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의 하나가 경주였다.

여말 선초를 거치면서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은 크게 소멸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82개만 존속하고, 성종 12년(1481)경에 가서는 12개의 부곡·향·소만이 속현조(屬縣條)에 남게 되었고, 나머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古跡條)에 수록할 정도로 모두 소멸되어 갔다.

앞의 책 고적조에 의하면 영일현에 도지(都只)부곡(현북 8리의 거리에 있다), 장기현에 신촌(新村)부곡(현북 12리)·팔어곡(八於谷)부곡(현서 7리)·허어리(許於里)부곡(현북 25리), 청하현에 북아(北阿)부곡(현북 10리)·등정(等汀)부곡(현동 7리)·김해(金海)부곡(현서 7리)·모등곡(毛等谷)부곡(현서 5리)·신지(新池)부곡(현서 4리)·우천(于川)부곡(현서 10리)·남계(南界)부곡(현남 10리), 신광현에 호촌(虎村)부곡(현동 남쪽 5리), 경주부에 성법(省法伊)부곡(부 북쪽 50리, 法은 임(仍)으로 쓰기도 함)등 13개 부곡이 있었으나 언제 소멸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 시기가 여말선초 이후부터 시작하여 늦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간행연대인 153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곡 중 면 정도의 큰 것은 현으로 작은 것은 동으로 변경된 것이 일반적이나 마을 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부곡은 조선시대 리(里)·동(洞)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임내의 장리를 통해 통치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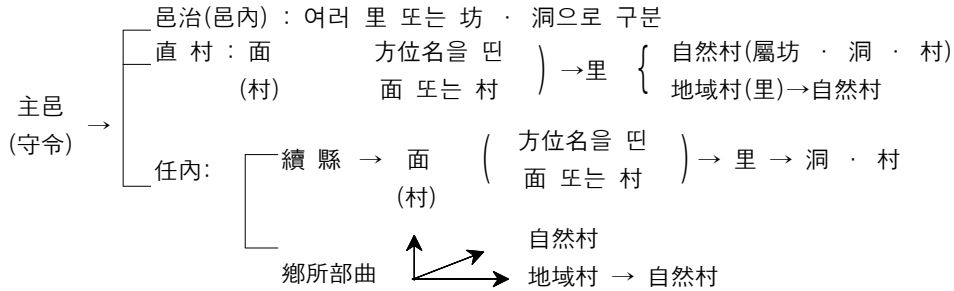
조선초기에는 벌써 향·소·부곡 등이 천민집단이라는 종래의 관념은 사라졌고, 단지 군·현 다음에 오는 하급 행정구역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규모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1개면(죽장부곡이 이에 해당)이나 1리정도(성법이부곡이 이에 해당)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 군현의 관내는 크게 읍치(邑治)·직촌 및 임내로 구분되며, 직촌에는 다시 방위명을 가진 면(村)이 있고, 그 다음에 리(里)·사(社)와 같은 연합촌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연촌이 병렬해 있었다.

임내는 속현(屬縣)과 향·소·부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현 및 속현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향·소·부곡은 그 아래 다수의 리와 촌을 두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향·소·부곡은 그 임내 자체가 하나의 리와 촌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

당시 군현의 하부 행정조직체계를 가상해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군현의 하부 행정조직체계



이와 같은 면리제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향리 대신에 사족 또는 양민출신의 권농관 내지 감고(監考)·리정(里正)이 면·리 단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개편이 되어 종래 향리의 직무는 그만큼 축소되어 갔다. 그리고 영일만권에도 조선시대 군현의 특수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월경지(越境地)와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가 있었다.

월경지(또는 飛入地)와 견아상입지(또는 斗入地)의 차이점은 전자는 군현의 소속 토지가 소속 군현과 절연된 채 다른 군현의 경내 속에 넘어가 존재하는 형태인데 반해 후자는 두 군현의 토지가 상대 지역으로 들어가 개의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는 형태이다.

영일만권의 대표적인 월경지는 죽장부곡 남촌 지등이리(只等伊里)이며, 견아상입지는 기계와 신광현이다.

지등이리는 영천군 북촌 고신역리(古新驛里)로서 죽장이 신라 때 장진현(長鎭縣)으로 임고군(臨臯郡)의 영현으로 있다가 고려 때 죽장부곡이 되어 경주부 임내로 속할 때 이 지역은 임내로 이속되지 않고 영천군 땅의 관내로 남게 되어 월경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잠시 월경지가 되었던 곳은 신광현·기계현·죽장부곡이다. 그 기간은 경주부 임내였던 안강이 고려 말 1390년에 지방관 감무(監務)를 두어 독립하였다가 조선 태조 3년(1394)에 다시 경주부 속현이 될 때 까지였으며, 속현이 된 후부터는 월경지의 요건이 소멸되었다.

한편 상주에 있던 경상도 감영은 중종 14년(1519)에 좌·우도로 나누어 우도감사는 상주목사를 좌도감사는 경주부윤이 겸하게 하였다가, 그해 기묘사화가 일어난 후 다시 환원 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선조 25년) 때 다시 좌·우도로 나누어지는 등 이합이 반복되다가 선조 34년(1601) 대구에 감영이 설치된 후 한말까지 존속하게 된다.

## 2. 흥해군과 영일현의 경계, 나루끝

### 1) 영일만권과 동해안의 육로·해로의 길목, 나루끝

오늘날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도 ‘나루끝’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한다. 설사 나루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차린 경우라 해도 포항 도심지 한복판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는 나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해 하긴 마찬가지다.

포항의 다른 지역은 거의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었지만 나루끝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그 모습을 변치 않고 일제강점기의 철길 형태가 덕수동과 우현동을 이은 채 최근 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이 지역이 철도청의 시설녹지로 묶여있어 개발이 늦어진 까닭이었다.

나루끝은 포항진(浦項津, 포항나루)의 끝지역 명칭이다. 이 명칭과 위치는 1832년의 《영일현읍지》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로부터 영일과 장기 등 남부 지역 사람들은 각종 특산물을 흥해를 비롯한 청하·송라·영덕 방면으로 운송할 때 모두 나루끝 지역을 거쳐 올라갔으므로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통행인의 숙박과 주막 역할을 하는 여천원(余川院)이 설치되어 성시를 이루었다. 이러한 ‘원(院)’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상공업의 발달과 장시의 번창으로 소멸하게 된다.

나루끝은 수백 년 동안 흥해군과 영일현을 잇는 영일만권의 육로·해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하천을 이용한 강운의 교통수단으로 소형선박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포항지역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중심지가 형산강 하류의 津津(현 연일대교 부근 나루)과 포항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1990년~1996년 용흥동과 우현동을 잇는 용흥고가도로의 개통, 1995~2008년의 동해면 석리와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포항국도 대체우회도로, 1991~2002년 경주시 강동면과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4차선(28번 국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포항지역의 모든 간선도로는 이곳과 연결되었고, 영덕·울진·삼척·강릉 등의 동해안 지역과 청송·영양·안동 등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교통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7번 국도의 길목과 동해안 해안도로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를 반영해주고 있다.

### 2) 형산강, 나루끝을 지나 동빈 내항으로

포항의 지형 특성을 살펴보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을 참고하면, 오늘날 포항시내 는 갯벌지역으로 3호(三湖) 5도(五島)를 형성하고, 형산강과 시내 서편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로 이루어진 여러 내(川)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도·대도·

해도·죽도의 형산강 지류와 감실골·대흥골·아치골·소티골 방면의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만나 형성된 칠성천·양학천·학산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영일의 주진(注津)을 거쳐 시내 서편을 따라 흘러 형산강 지류를 이룬 칠성강이 포함나루의 시발점이 되고, 소티골과 아치골에서 발원된 냇물과 합쳐져 나루 끝과 학산천을 경유하여 동빈내항으로 유입되었다 한다.

조선 후기(1832년 전후) 나루끝을 형성한 지류가 서산의 토사와 지형변화로 매몰되고, 1914년부터의 형산강제방축조공사 등으로 논밭이 형성되고 택지가 조성되면서 제 모습을 잃고 명칭만 남게 되었다. 또한 지류 부근의 개간으로 지형이 변모하는 중에서도 근래까지 동빈내항 쪽에 학산천 하구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롯데백화점 앞길(동서로)이 개설되어 배수로로 복개되면서 그 형태는 완전 소멸되고 말았다.

### 3) 나루끝 지역, 조선시대에 영일현에서 흥해군 치역으로 개편

오늘날 포항시내 지역은 영일현의 연혁과 고려말(1387년) 통양포수군만호진(通洋浦水軍萬戶鎭)의 행정구역으로 보아 영일현의 행정구역이었음이 분명하다.

고려 말 이승인(李崇仁)의 <영일읍성기문(迎日邑城記文)>에 “영일은 계림의 속현으로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그 치역은 또 통양포에 임해 있으니 ……”와 “이인부(李仁夫), 통양포의 만호로서 현의 감무(監務)를 지냈다”는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영일만 내의 바닷가는 통양포(현 포항시 두호동)까지도 영일현의 치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이러한 치역이 조선 시대에 와서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 포항의 북부지역이 점차 흥해군 지역으로 편입되어 갔던 것인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초기에 이르러 영일현에 영일진이 임곡포에서 6리 떨어진 곳에 설치됨에 따라 그 동안 이 고장의 만호진이었던 통양포의 군사시설은 흥해지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 지역은 둘로 나누어져 남쪽의 포함리 부근지역과 형산강의 지류지역은 영일현에, 북쪽의 여천에서 통양포에 이르는 지역은 흥해군에 소속된 것이다.

1425년의 <경상도지리지>에 관방(關防)의 요충지인 통양포(通洋浦)를 흥해 땅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나, 더욱이 통양포보다 훨씬 남쪽지역의 여천원(余川院: 여천리 소재)이 영일현에 소속되지 않고 흥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신중동국여지 승람>, 1530년)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 1832년과 1871년에 편찬된 <영일현 읍지>에서 나타난 영일현의 치역에서도 이를 살펴 볼 수 있다.

① 포항리는 영일현 북면에 속해 있는데, 당시 북면에는 득량리·무소리(茂所里)·논곡리(論谷里)·대잠리·효자리·유등리(柳等里)·와곡리(臥谷里) 등 8개 동이 속해 있었다.(1832년의 읍지)

② 오랫동안 섬안으로 불리어졌던 섬안마을, 즉 도내리(島內里)와 생지리·장흥리·송정리 등이 함께 읍내면에 소속되어 있었다.(앞의 책)

③ 영일현의 읍내면에 포항리·득량리·학잠리·논곡리·이동리·효자리·무소리·굴암리·지곡리·유등리 10개 동이 속해 있고, 고읍면에 하도리·상도리·하도리·분도리(分島里)·죽도리 등이 다른 마을과 함께 속해 있었다.(1871년의 읍지)

이와 같이 《영일현 읍지》의 기록에서 현의 치역 안에 있는 마을을 살펴보면, 흥해군 지역과 맞닿는 지점의 포항리 이외의 포항 북부지역은 여전히 영일현의 치역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조선초기 이래 포항지역의 분할양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조선초기의 통양포와 여천지역이 영일현 소속에서 흥해군 소속으로 바뀌게 된 까닭을 도로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행정·군사·교통·운수를 위한 도로망·역원제·봉수제가 발전하여 그 일환으로 포항북부의 나루끝과 두호동에서 흥해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루끝 가까이에 여천원(余川院)이 번창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항 북부지역과 흥해의 교통·운수가 포항 북부지역과 영일현의 것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두호동이나 환호동 지역에서 흥해로 가는 길 즉 ① 두호동→새밀못→장성동 침촌→불말골(불밋골)→망천(망천역이 있던 곳)→흥해읍, ② 환호동→새깃재→갯거랑→감태고개→새터→망천→흥해읍으로 가는 길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을 통하면 흥해로 가는 거리가 연일쪽보다 10리 정도 가깝다.

#### 4) 흥해와 영일의 경계선 여을천

행정구역의 경계가 대개 산천과 도로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포항 지역의 경우도 내(川)를 경계로 하여 구분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의 흥해군조에 “동으로 영일현과의 경계는 여을천(余乙川)인데 15리 거리에 있다”하고, 영일현조에 “북으로 흥해군과의 경계는 여을천으로 14里 202步의 거리에 있다”하여 각각 여을천을 경계로 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6尺 : 1步, 360步 : 1里)

기록이나 거리상으로 보면 여을천은 현 연일읍 사무소와 흥해읍 사무소의 중간 지점이 된다. 오늘날 여천이라는 이름이 여을천에서 유래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로서 여을천이 어느 곳이었는지를 확증할 수 없으나 여을천의 고지명 해석과 여타의



방증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여을천의 기록은 1425년(세종7), 즉 세종이 한글을 반포(1446)하기 이전의 것으로 당시는 옛 부터 내려오는 이두로 지명을 표시했던 관계로 여을 본래의 우리말 명칭인 ‘나를’이 한자로 표기될 때는 ‘여을’로, 즉 ‘나를 내(물건을 옮겨 나르는 내)’가 ‘余乙川’으로 표기 된 것으로, 이러한 ‘나를’이 점차 ‘나르’에서 ‘나루’ 또는 ‘나’와 ‘르’의 ‘나르’에서 ‘나루’로 변천되어 불리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 5) 여천 마을의 이동

여천리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행정구역의 변천 또는 취락의 발전에 따라 중심 마을의 위치나 마을의 범위가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여천리의 영역이 오늘날의 우현동 동남부에서부터 나루곶을 거쳐 중앙동지구대 부근까지 변천되고 있다. 중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5세기 후반의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 “興海郡 여천리(余川里) 제비제(濟非堤)”라는 기록이 있다. 제비제는 ‘제비뭇’이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시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포항여성문화회관 뒷산을 연산(燕山, 제비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1990년대 우현동에서 창포동으로 향하는 새천년길의 개통으로 산허리가 동강나 그 형세를 잃어가고 있다. 그 곳 골짜기의 못을 연지(燕池, 제비뭇)라고 불렀는데, 1992년에 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우현시영아파트가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조선시대 전기에 흥해군 동상면(東上面)에 여천원(余川院)이 설치되었다가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에 의해 폐지되고 대신 여천동 남쪽에 여천시장이 형성되었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흥해군과 영일현의 경계선인 여을천을 어디로 비정하느냐 하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우선 오늘날의 우현과 아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하나의 내를 형성해서 항구동이나 동빈로 앞바다로 흘러내려간 것이 여을천이었다고 비정해 본다.

조선초기부터 여천리는 나루곶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흥해와 영일을 잇는 육로와 해로의 길목 역할을 하였으며, 여천원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설치되어 한 때 번창한 것이다.

조선후기 흥해군 동상면에 신흥리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포항리와 나루곶 여천리 사이에는 민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가, 여을천과 나루곶의 역할이 지형적인 변화와 상권의 이동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면서 뚝단배가 출입하는 칠성강 안쪽의 포항장과 견줄만한 여천장을 동빈부두 남쪽으로 옮겨 개설하게 된 것이다. 여천장 부근은 새로 개척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다수 이주하여 큰 상권이 이루어지면서 여천리의 중심마을은 점차 오늘날의 여천동지역으

로 옮겨지게 되었다.

근래까지 여을천 경계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주목되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1960~70년대까지도 속칭 학산천 북쪽의 사람들이 학산천 남쪽 시내로 가는 것을 ‘포항 간다’라고 말한 사실이다. ‘흥해군 사람이 영일현 포항으로 간다’라는 의식이 두 지역이 합쳐진 후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慶尙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  
金龍德,《韓國制度史研究》, 일조각, 1983.  
李樹健,《韓國中世社會史 研究》, 일조각, 1984.  
朴興秀,《韓·中度量衡制度史》,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裴勇一,〈흥해군과 영일현의 길목, 나루골〉《경북매일신문》, 2006. 6. 2.

## 제2절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군제

### 1. 영일만권의 군사조직 변천

조선은 초기부터 국방강화에 노력하여 병역제도가 강화되고 군사조직이 정비되었다. 병역제도는 병농일치와 양인개병제를 원칙으로 하여 16~60세의 정남(丁男)은 정군(正軍)이 되거나 정군(正軍)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을 봉족(奉足, 保人)이 되어야 했다.

병종(兵種)에 따라 정군 하나에 봉족 몇을 일정하게 배정하여 하나의 군호(軍戶)가 되게 하였다. 군적의 작성은 호적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호적이 3년에 한 번씩 작성된데 비하여 군적(軍籍)은 6년에 한 번씩 작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의 正軍이 95,198명으로 그 중 경상도는 22,443명으로 으뜸이다.

《경상도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의 경우 정군에 봉족수를 합산한 全人丁과의 관계는 3.5대 1이다. 이러한 관계를 참작하면 전국의 정군과 봉족은 30만이 넘는다. 병력 수는 이후 점차 증가되어 성종 8년에는 정군 146,339명, 봉족 362,105명(경상도는 정군 35,517명, 봉족 94,810명)이 되었다.

태종때 영진군(營鎭軍)과 기선군(騎船軍)이 증강 정비되었고, 그 규모가 《경상도지리지》에 밝혀져 있는데 이 고장에는 경상도 4진(영해진·영일진·동래진·사천진)의 하나인 영일진이 다음과 같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 영일진 : 안동군관 78명, 수성군(守城軍) 40, 예천군관 29, 영천군관 26, 대구군관 1, 흥해군관 3, 수성군 14, 의성군관 30, 의흥군관 12, 신령군관 10, 영일군관 7, 수성군 21, 장기 군관 3, 수성군 1, 인동군관 50, 군위군관 20, 하양군관 9, 북안군관 23, 경주입내 성법이부곡 수성군 4 (합계 군관 301, 수성군 80)

그리고 당시 경상도의 관방요해처는 총 68개의 지역으로 이 고장에는 흥해의 통양포(通洋浦), 영일의 동을배곶(冬乙背串), 장기의 포이포(包伊浦), 청하의 개포(介浦) 등이 주목되고 있었으며, 특히 흥해의 통양포에는 천호(후에 만호로 승격 됨)를 두어 두 모적포(斗毛赤浦)에 정박하고 있는 병선 8척과 기선군 218명을 거느리게 하고, 장기의 포이포에 역시 천호(후에 만호로 승격 됨)를 두어 가암포(加巖(嚴)浦)에 정박하고 있는 병선 8척과 기선군 589명을 통솔케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영일만권의 해안지역이 예로부터 동여진과 왜구와 같은 외적의 침입이 잦은 곳이어서 국토방위의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아오던 중, 특히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고려왕조는 선군(船軍)의 재건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국방체제를 조선조에서도 이어받은 결과로 보인다.

《경상도지리지》 이후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이 고장 각 군·현의 정군(正軍) 수는 다음과 같다.

각 군현의 정군수

(단위: 명)

군·현명	병종	시위군(侍衛軍)	진군(鎭軍)	선군(船軍)
흥 해 군		10	27	165
영 일 현		8	40	130
장 기 현		4	1	34
청 하 현		2	없음	46

표에 나타난 진군은 시위군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군인이지만 기선군(騎船軍, 船軍)이나 수성군(守城軍)과는 달리 마군(馬軍)이었다. 그리하여 군관으로 지칭된 것 같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봉족은 전(田) 3결(結)이하의 소유자에게 1호가 주어졌으며(태종 4년), 당번기간 중에는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세종 9년)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 농민이 담당하는 군역의 형식은 시위군(侍衛軍), 영진군, 수성군, 기선군(선군)의 4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으며, 육수군(陸水軍)을 이루는 앞의 3군 가운데 가장 뒤지는 군사가 봉족의 분급도 받지 못한 보병의 수성군이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원년 7월 정미조에 의하면 해군인 기선군은 배를 타고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고된 해상근무의 대가로 이들에게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을 스스로 취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하지 못하게 교서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가 안정되고 권력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선군의 복무가 군역화 됨에 따라 어염(魚鹽)의 리(利)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자염(煮鹽)의 역(役)으로 변해 군역에 덧붙여져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선군은 신랑역천(身良役賤)으로 그 역을 천시하고 피하게 되어 신분적 격하를 가져왔다. 이들에게도 봉족이 배당되고, 당번·비번이 있었으나 다른 지방군이 대체로 4교대로 1년에 2개월 정도 근무 하는데 반하여, 이들은 1개월씩 2교대로 1년 평균 6개월여를 근무해야 하기에 그 복무조건도 불리하였다. 또한 가족에게 세습되었기 때문에 기선군에 들어가는 자는 세력이 없고 가난한 연해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고장 흥해·영일·장기·청하 등지에 소금 굽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이 고장에서의 그들의 신랑역천(身良役賤) 현상을 짐작케 하고 있다. 각 포(浦)에 배치되는 이들 선군은 전국 각 관에서 차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번이 되어 차출되는 선군은 소속의 만호처에 나가 일정한 선박에 올라 해상근무를 해야 했다. 병선 제작은 수십 년 이상에서 백여 년이 된 소나무를 사용하므로 산에 불을 금하고 연해의 소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두었다. 그러나 사사로이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짓기 위하여 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령·만호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게 하는 한편 일정 지역을 정해 병선에 사용할 나무를 키우도록 하였는데, 이 고장은 영일현의 삼사랑(三士郎) 등지에 있었다고 한다.

기선군(騎船軍)은 선군(船軍)으로도 일컬어지다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부터 대개 수군(水軍)으로 명기되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경상도에는 1척에 수군 80인을 배치하는 대맹선(大猛船) 20척, 1척에 수군 60인을 배치하는 중맹선(中猛船) 66척, 1척에 수군 30인을 배치하는 소맹선(小猛船) 105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75척을 진(鎭)과 포(浦)에 편제토록 하였는데, 영일만권에서는 장기의 포이포(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에 중맹선 1척, 소맹선 6척, 무군소맹선 1척이 흥해의 칠포에는 소맹선 4척과 무군소맹선 1척이 배치되었다. 당시 진관체제(鎭管體制)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군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병(正兵)이 각 진관에 적을 두고 소속되어 있었으나 평시에는 비번인 채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종의 잠재적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전략상 특수지대가 전국의 요지에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4여(旅)로부터 1여에 이르는 군사가 체류하였는데, 이를 유방군(留防軍)이라고 한다. 이들 유방군은 각도의 정병 가운데 유방을 주 임무로 하는 양인(良人)군사로 4교대로 부방(赴防) 복무하되 1보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진관체제가 완성되고 또한 초기부터의 잡색군(雜色軍) 조직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사실상 지방의 방위책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유방군(留防軍)이었다.

《경국대전》 병전 유방조에 “各道緊要諸鎭置留防兵以備不處”라 하여 각도의 긴급(緊要)한 제진(諸鎭)에 유방병(留防兵)을 두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고 있어 평시에도 상당수의 병력을 진(鎭)에 상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1여(旅)는 대략 125인 정도였으며 경상도의 유방병 배치와 병력규모는 다음과 같다.

경상도의 유방군 배치와 병력규모

유방(留防) 4旅	유방 3여	유방 2여	유방 1여	유방 합계
주진	동래·웅천	영해·김해·사천·영일	남해·거제	24여(3,000명)

《세조실록》과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영일진(임곡포의 6리 20보의 지점)은 태종 17년(1417) 4월에 설치되고, 세조원년(1455)에 이 고장의 중심 진영(中翼)으로서 장기를 좌익, 흥해를 우익으로 두고, 군관 301명, 보병 150명을 배치하였고, 이후 세조 13년에는 정병 2여, 입방(立防)기병 100명, 보병 150명을 배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흥해군 칠포에 기선군 240명이 배치되고, 장기현에도 세조 6년(1460)에 독진(獨鎭)이 설치되고, 청하현은 세조 원년에 영해진(중익)의 좌익이 된 후(우익은 영덕) 세조 6년에 독진(獨鎭)을 설치하게 되었음도 아울러 일러주고 있다.

영일만권의 육·해군은 경상도 감영(상주)에 속하였으며, 육군은 경상좌병영(울산) 소속의 경주첨절제사진관(慶州僉節制使鎭管) 아래에, 흥해군에는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종 4품)를, 영일현·장기현·청하현에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徒尉 : 종 6품)를 두어 모두 그 지방 수령으로 겸임케 하였으며, 해군은 경상도 좌수영(左水營 : 동래)소속의 부산포첨절제후진관(釜山浦僉節制侯鎭管) 아래에, 흥해군 칠포와 장기현 포이포에 만호(종 4품)를 두어 수군진을 관장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고장의 군사조직은 설치에서부터 험파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수정보완의 과정을 밟게 되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크게 달라지게 된다.

## 2. 영일만권 수군만호진의 설페

오늘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신라 때부터 왜구침입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수령·주민들은 이 지역을 국토방위의 전진기지로서 요새화 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 왔다. 옛 문헌에 기록되어 밝혀지는 청하의 개포(介浦), 장기의 포이포(包伊浦), 영일의 통양포(通洋浦), 흥해의 칠포(漆浦)등의 수군진을 비롯하여 연안 각 고을의 여러 읍성·산성·진성(鎭城)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영일만지역의 해안이 국방의 중요지점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은 이곳이 예로부터 신라의 서울인 경주로 들어가는 어구가 되어 왜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東文選》(1478년)에 기록된 권근의 <흥해군신성문루기(興海郡新城門樓記)>와 이송인의 <영일현신성기(迎日縣新城記)>는 이러한 상황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영일만권의 수군진(浦鎭) 설치의 일찍이 신라 때부터 비롯되어 고려·조선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수군진을 설치한 곳이 청하의 개포(현 월포 지역)이다. 개포의 지형은 다른 수군진 설치지역의 지형과 마찬가지로 U자 모양으로 육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가장 깊숙한 안쪽은 조금 높은 평지(두둑)를 이루어 성과 진을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적합한 곳이다. 신라 때에 군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배치하고 3곳에 해자(垓字)를 파서 왜구를 막았던 개포는 이후 해문(海門)이 광활하여 항상 풍환(風患)이 발생하는 약점이 있어 영일현의 통양포에 수군진을 옮겨 배치하였다.

고려 우왕 13년(1387)에 영일현 통양포(斗毛赤浦, 현 포항시 두호동)에 수군만호진을 설치하여 만호(종 4품)를 위시하여 정규 수군과 병선을 배치하여 이 고장은 물론 국가의 방어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다.

만호는 무관직의 하나로,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다스리는 민호의 수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몽고식 군제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고려 때에는 원의 제도를 따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조선조에 와서는 차차 민호의 수와는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으며 육군보다는 수군에만 이 명칭이 남게 되었다.

포진의 백성과 그 주변의 일반 양민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행정 군사기능을 가진 여말선초의 포진은 입지조건에 따라 이치(移置)·개폐(改廢)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는데, ① 포진은 바람이 없고 광활하며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연의 요새로서 U자형의 지형, ② 바다 밑에 암석이 없고 사토가 좋아야 하며, 썰물 때도 정박시킬 수 있고 포진 밖에 병선을 정박시킬 수 있는 곳, ③ 주변 영진(營鎭)과의 관계나 왜구의 침입로인 요해처 및 각 포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설치되었으며, 포진은 수영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폐되었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의 설치는 고려 말 1350년부터 시작된 왜구의 약탈이 공민왕 20년(1371)을 거쳐 우왕 때(1375~387)에 이르러 그 극에 달하고, 이 고장에서도 1380~1381년 2년 동안 왜구로 인해 큰 병화를 입게 됨에 따라 그들의 침탈을 방지코자 하는 조정과 이 고장 관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흥해읍 성과 영일읍성도 각각 1389년과 1390년에 다시 쌓게 된 것이며, 이는 통양포수군만호진과 밀접한 관련 하에 구축된 이 고장의 방어선인 것이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이 설치됨으로써 두모포(두모적포)가 영일만권의 중심적인 해군전방기지로써 부상하게 되었다. 영일만내의 포항지역에 처음으로 국방기지를 설치하게 된 사실은 오늘날 해병부대기지의 설치와 연관 지어 한국국방사에서 영일만의 중요성을 밝히는 사건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

당시 통양포수군만호진의 규모가 어떠한가는 지금으로서 명확히 구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태종·세종 때 새로운 군사제도의 마련에 따라 임곡포(林谷浦)의 6리 20보 지점에 경상도 4진(四鎭, 寧海·迎日·東萊·泗川) 중의 하나인 영일진(中翼)을 설치하여 좌익(左翼)을 장기로, 우익(右翼)을 흥해로 삼았다. 이 같은 새로운 방어선 구축으로 인해

기존의 방어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으나 세종 초기에 통양포수군만호진을 흥해군 칠포로 이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아마도 영일진이 이 고장 방어의 중심지로서 영일만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영일만내의 지역인 통양포에 이중으로 진을 둘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통양진을 칠포로 옮겨 우익인 흥해지역의 방비를 보강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통양포의 수군과 병선이 옮겨진 것은 훨씬 후가 되는 1510년(중종 5년)이며 성의 축조연대는 1510~1515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의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원문생략)

- ① 통양포는 흥해에 있으니 천호가 거느리는 병선 8척과 기선군 218명은 아직도 두모적포에 정박하고 있다.(《경상도지리지》, 1425)
- ② 통양포만호영은 이미 흥해군 칠포에 옮겨졌으니 칠포만호영으로 개칭하기를 청하여 고치게 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윤 9월조, 1452)
- ③ 통양포는 영일진 북쪽 12리 지점에 있으며, 수군만호로 지키고 있다.(《세종실록 지리지》, 1454)
- ④ 칠포는 비록 큰 배를 정박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은 정박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 흥해에 비록 새로운 진을 설치하더라도 지킬 군사가 없으면 칠포는 갑자기 헐파시킬 수가 없으니, 작은 배를 개조하여 옛 처럼 방어하고 흥해진의 군사는 가까운 곳은 한량인(閑良人)을 사용하여 점차 충당하도록 정하였다.(《세조실록》, 3년 2월조, 1457)
- ⑤ 칠포는 흥해군 북쪽 관문에서 12리 떨어진 칠질리(漆叱里)에 있으며, 병선 4척, 기선군(騎船軍) 240명, 무군병선(無軍兵船) 3척이 있다.(《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 ⑥ 칠포에 소맹선 4척과 이에 따른 수군 120인, 무군소맹선 1척을 배치하였다.(《경국대전》, 병전, 1485)
- ⑦ 칠포영은 북쪽 15리에 있으며, 1510년에 통양포만호진을 칠포성에 옮겨 합하였다. 둘레가 1,153척이며, 우물이 2곳이고, 수군만호를 두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⑧ 1510년(중종 5년) 비로소 돌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153척이고 높이가 9척이며, 안에 우물 2곳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⑨ 통양포진은 북쪽 22리에 있으며, 수군만호진을 두었다가 뒤에 흥해군 칠포에 옮겨졌다.(《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⑩ 현 칠포 1동의 한 민가에 “正德十年 乙亥造築城”이라는 기념비가 서 있다.(정덕 10년 올해는 1515년임)



- ⑩ 칠포진은 동래현 남쪽 12리에 있다. 선조 25년 흥해에서 부산으로 옮겼다가 또 남촌으로 옮겼다. 옛날에 만호가 있었다. 영조 27년(1751)에 없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조, 1530)

이상으로 보아, 첫째 통양포만호진에 병선 8척, 기선군 218명이 정박 주둔하고 있었고, 둘째 통양포만호진을 칠포로 옮기기로 결정한 후에도 칠포만호영을 그대로 통양포만호영으로 부르다가 단종 때에 가서 비로소 칠포만호영으로 개칭하였고, 셋째 통양포수군진이 고려 말에 만호진으로 출발하여 세종 때 한번 천호진으로 격하되고, 이후 모든 기록에 만호진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무슨 연유인지 고찰해야 할 문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로서는 태종때 영일진이 이 고장의 중요 육군진으로 등장하면서 세종때 통양포수군진이 일시 격이 낮아졌다가 세조 때 흥해가 영일진의 우익으로 편성되어 통양포수군진의 역할이 주목되면서 그 격이 만호진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넷째 세종 초기에 통양포만호진을 칠포로 옮기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오랫동안 병선과 수군을 그대로 통양포에 두었다가 1510년에 가서 칠포에 모두 옮겨 합치고 그 해에 축성을 시작하여 1515년에 완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1510년 통양포수군만호진이 칠포만호진으로 합쳐지게 되면서부터 통양포 지역은 동해안의 중심 관방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에 부대하여 발전했을 촌락형제도 일시 위축, 쇠퇴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장기현의 포이포진에 관한 기록을 발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장기 포이포(包伊浦)에 천호를 두어 加巖(嚴)浦에 정박하고 있는 병선 8척과 기선군 589명을 거느리게 하였다.(《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 ② 울산과 영일간 150리 사이의 방수(防戍)가 지적되어 장기현에 새로이 1진을 설치해야 됨을 병조에 명을 내리고 있다.(《세종실록》, 21년 9월)
- ③ 장기의 포이포와 흥해의 칠포 등을 혁파하여 흥해진에 선군(船軍)을 이속하자는 병조의 결정이 있는 후 포이포에 진군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포이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세조실록》, 4년 11월)
- ④ 세조 5년(1460) 수군만호독진을 설치했다가 세조 12년에 파하였다. 포이포는 장기현 관문에서 북쪽으로 17리 210보의 거리에 있으며, 병선이 7척 기선군이 480명, 무군병선이 4척이 있다.(《경상도속찬지리지》)
- ⑤ 포이포에 중맹선(中猛船) 1척, 소맹선(小猛船) 6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1척, 수군 240명을 배치하였다.(《경국대전》)
- ⑥ 포이포영은 장기현의 북쪽 17리 떨어진 곳에 있고, 수군만호 1명이 있다. 포이포진은 동래현 동남쪽 13리에 있으며, 선조 25년에 장기에서 여기에 옮겨 설치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장기현·동래현조)

- ⑦ 진보(鎭堡) 포이포는 현북 17리에 있다가 1658년(효종 9년) 진을 동래로 옮겼다.(《장기현 읍지》, 1832)

이로써 보면, 첫째 포이포에는 조선초기부터 수군진이 설치된 것은 확실하나 그 출발이 만호진 이었는지는 불확실하며, 둘째 통양포와 같이 세종 때는 천호진 이었다가 세종때 장기가 영일진의 좌익으로 편성되어 그 역할이 주목되면서 포이포 만호진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수군기지로서는 포이포에 가장 많은 병선과 수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넷째 포이포진은 선조 25년 임진왜란시 동래로 옮기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앞서 고찰한 통양포만호진처럼 얼마동안 병선과 수군이 그대로 있다가 1658년에 가서 실제로 진을 옮겨 갔음을 밝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되는 사항은 통양포수군진이나 포이포수군진의 위치가 각각 흥해군의 통양포(오늘날의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역)와 장기현의 포이포(오늘날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임진왜란 발발 후 경박(輕薄)한 왜선이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정박하다가 큰 파도에 파선되는 것을 유도하며, 다른 한편으로 동래수영과 책응(策應)하는 임무를 띠고 수영성 관할로 이전하게 된 경주의 감포, 영덕의 축산포, 흥해의 칠포, 장기의 포이포 수군진들은 영조 27년(1751) 1월 진의 효율성을 논의한 끝에 포이포진만 그대로 두고 모두 혁파하였다.

### 3. 축성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예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전략·전술인 청야(淸野, 유사시에는 평상시에 거주하던 평지의 가사(家舍)와 전답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와 산성입보(山城入保, 미리 험난하고 막힌 산성에 들어가 농성하는 것)의 전란 대비책을 계승하여, 태종 10년(1410)에 전국의 주요 산성을 수개축(修改築) 하였다.

그러나 여말부터 급한 나머지 평지거처와 전야의 가사와 곡식을 그대로 놓아둔 채 입보하는 점과, 분산된 백성들이 얼마간의 거리에 갑자기 이입치 못하여 해를 당하는 점 등 입보체제에 차츰 폐단이 지적되었다.

또한 설치된 성책이 몇 해만에 허물어져 무너지게 되는 바람에 매 3년마다 성책을 수개축하는 비용과 노력이 들고, 농사가 바쁠 때에도 유사시는 입보해야 하였으므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적 침입의 요지에 행성(行城)을 축조하고 항시 유둔(留屯)하여 지키는 군사를 배치하는 전법 상의 변화가 세종 22년(1440)부터 일어났다. 그리하여 세조대를 거쳐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전기의 관방시설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고장의 여러 고을의 축성이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현종 때 동여진의 침입과, 고려 말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몇 차례 중수 개축된 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조선 초기 이 고장의 축성은 세종 11년(1429) 정월 “경상도의 연해가 왜인이 자주 드나드는 데에도 성보(城堡)가 완고 하지 못하다 하고, 10여 년을 기약하고 매년 농한기에 쌓도록 한다면 좋겠다”는 허유(許紬)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삼도(下三道) 연해읍성의 축조계획이 착수되면서 비롯되었다. 물론 세종 10년까지 부분적으로 임기응변의 자세로 가장 급한 고을에 축성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대신이 파견되어 일괄적으로 성기(城基)를 심사하여 정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축성이 시작된 것은 세종 11년부터였다.

그 해 2월달 최윤덕(崔潤德)이 도순무사(都巡撫使)가 되어 내세운 각관(各官) 성자조축(城子造築)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하삼도의 각관 성자 가운데 방어상 가장 중요한 연변 군현은 산성을 제외시켜 모두 읍성을 쌓는다. 쓸 만한 읍성이 없는 곳만은 산성을 수축한다.
- ② 연변 각관의 축성 시에는 부근의 육지 읍을 3~4읍 혹은 5~6읍 단위로 묶어 조축의 역을 담당케 한다.
- ③ 민호가 적고 또 쌓을만한 성이 없는 고을은 인근의 성이 있는 고을에 입보토록 한다.
- ④ 옛 성으로 쓸 만한 곳이 있는 군현은 그것을 수축케 하고, 없으면 새로이 쌓도록 한다.
- ⑤ 각관의 성(城) 중 민호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각기 호수의 다소에 따라 혹은 넓히고 혹은 좁혀서 개축한다.
- ⑥ 각관의 성을 한꺼번에 쌓을 수 없으므로 각기 성의 크기를 헤아려 연차적으로 한년(限年)을 두고 튼튼히 쌓도록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읍성은 세종조에 이르러 여말선초보다 해안 주민이 늘어나서 이들 주민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왜구가 내지로 깊숙이 침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성보다 효과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그 개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이 고장의 읍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지리지》(1425)

읍성명	주(周, 둘레)	내광(內廣, 안 넓이)	정(井, 우물)	비 고
흥 해 읍 성	375보(步)	3결(結) 30복(卜)	4	둘레375보는2,250자(尺)
영 일	100보	92복	1	100보는 600자
장 기	174보	1결 45복 7속(束)	2	174보는 1,044자
청 하	220보	2결 48복	2	220보는 1,320자

《세종실록지리지》(1454)

읍성명	주(周, 둘레)	정(井, 우물)	비 고
흥 해	375보	4	석 성
영 일	100보	1	"
장 기	174보	2	"
청 하	220보	2	"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읍성명	축조연대	둘레	높이	지(池, 못)	우물	기타	비 고
흥 해	태종18년(1418)	1,494자	13자	1	3	마르지 않음	석축
영 일	세종12년(1430)	2,914.9자	12자		3	"	"
장 기	세종21(1439)	3,664자	12자	2	2	"	"
청 하	세종10(1428)	1,212자	9.2자	1	3	"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읍성명	둘레	높이	우물	못	비 고
흥 해	1,494자	13자	3		석축
영 일	2,940자	12자	3		"
장 기	2,980자	10자《여지도서》	4	2	"
청 하	1,353자	9자	2		"

영일만권의 4읍성에 관한 기록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가 그 하나이며,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다른 하나로 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흥해읍성과 청하읍성의 규모는 줄어

든 반면에 영일읍성과 장기읍성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된 점으로 영일읍성은 무려 5배나 늘어났다. 이는 전후(前後) 사용된 지척(地尺, 고구려척 1척은 35.56cm)과 포백척(布帛尺, 1척은 46.73cm)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일진이 이 고장의 중익으로 그 역할이 크게 부상되고, 장기의 포이포진이 해방요처로 조정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두 현에 지현사(知縣事)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청하읍성은 1427(세종 9년) 청하현감 민인(閔寅)때 안동·봉화·풍기·영천 등지의 읍군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주위 1,353자, 높이 9자, 여첩(女堞, 성위에 낮게 쌓은 담, 몸을 숨겨 적을 치는 곳) 1첩, 동서문 내 못이 2곳, 우물이 2곳이었다는 기록(1832년의 《청하읍지》)이 있어 시기상의 혼란을 주나 1427년에 축성 사업이 크게 시작되어 꾸준히 성을 쌓은 결과 준공 때의 규모가 마지막 수치로서 여러 읍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21년 1월 28일에 경상도 영일과 김해에 성을 쌓게 하고, 동년 11월 20일에 경상도 장기·영일·남해 등에 성을 쌓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성의 바탕은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돌을 산중턱 고지로 운반하여 정교한 석축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선인들의 지혜와 노고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고장의 성들은 당당했던 옛 모습은 찾을 길 없고 점차 허물어져 가는 잔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포항축항공사에 흥해읍성의 돌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굴절된 근대화의 대표적인 횡포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된 장기 읍성은 1998년부터 복원 공사를 해 오고 있다. 한번 훼손된 유적은 원형으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도 조상의 피땀 어린 유물과 유적을 무관심과 무지, 현대문명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파괴하거나 방치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면 이 고장 영일만권의 축성은 태종 18년(1418)에서 세종 21년(1439)의 21년간 오랜 시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12년 12월에 경상도의 연일·곤남·합포와 전라도의 임파·무안·순천, 충청도의 비인·보령 등지에 축성을 시작하면서 “이 성역(城役)에 종사관을 시켜 창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음(宴飲)하여 각관은 이를 공돈(供頓)하기에 피곤하니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였다”고 함을 보면 모처럼의 유비무환 시책이 지리(地利)를 얻었으나 인화를 해치는 경우도 있어 백성들의 성역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세종 13년에는 축성 후 5년 이내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그 관리는 울문에 따라 장(杖) 80도(度)로 다스려 환직 시켜 개축토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새로 쌓은 읍성 이외에 옛 읍성이나 영일만의 관방만호진(關防萬戶鎭)에 딸린 영성(營城)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경상도속찬지리지》

- 흥해군 : 옛날에 축조한 산성이 군 남쪽의 망창산에 있으며, 둘레는 60여척, 못 1, 샘 1, 우물 2이고, 겨울과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산세가 험조(險阻)하나 가히 사용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흥해군 : 칠포영(漆浦營)의 성은 1510년(중종 5년)에 쌓았으며, 둘레는 1,153척, 높이 9척, 우물이 2곳 있다. 망창산성은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6천척이요, 안에 못이 1, 샘이 3곳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영일현 : 고현성이 현동 15리 거리에 있는데, 흙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1천척이며, 지금은 없어졌다.
- 장기현 : 옛 읍성이 현남쪽 2리 거리에 있으며, 석축으로 둘레가 1천척이며, 지금은 없어졌다.
- 청하현 : 개포(介浦)는 현동쪽 6리의 거리에 있으며, 신라 때 군영을 설치하고 해안 개포 3곳에 해자(垓字)를 파서 왜구를 막았다고 하는데, 그 길이는 각각 2리이고 깊이는 두어 길(仞) 되었으며,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덕성(德城, 古 청하)은 현청 소재지 남쪽 10리에 그 터가 남아 있다.

그 밖에 당시 잔존했을 구읍성이나 만호영(옛 두모포영이나 당시의 포이포영)에 딸린 성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규모의 실체를 알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장기읍성과 영일읍성의 지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1) 장기읍성(長鬐邑城)

조선 태종 15년(1415)에 장기읍성의 지리적 중요성에 따라 수령(현감)의 지위를 4품 이상으로 높여 무신으로 고관을 임명하여 지현사를 두었으며, 세조 5년(1460)에는 독진(獨鎭)을 설치하였다가 왕 12년(1467)에 독진을 파하였다.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장기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토성을 쌓았다는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있지만, 조선전기의 사서에 나타난 축성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세종 7년(1425)에 나온 《경상도지리지》에 성의 둘레가 375보(步)이고, 내광(內廣, 성안 넓이)이 1결(結) 45복(卜) 7속(束)이며, 우물 2곳이 있다.
- ②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성의 둘레가 174보이고, 성안에 우물 2곳이 있다.

- ③ 예종 1년(1469)에 지은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세종 21년(1439)에 돌로 쌓고, 둘레가 3,664척이고, 높이는 12척이며, 샘(泉)이 2곳이고, 못(池)이 2곳으로 겨울과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군창(軍倉)도 있다.
- ④ 중종 25년(1530)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석축을 하고 둘레가 2,980척이고, 높이는 10척으로 우물이 4곳이고, 못이 2곳 이다.
- ⑤ 위《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장기현 고적(古跡) 에는 구읍성이 현의 남쪽 2리에 있으며 돌로 쌓아 그 둘레가 468척이고, 높이는 12척이며, 샘이 2곳 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성의 규모를 보면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같은 위치의 성을 여러 대에 걸쳐 증축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최소한 2개 이상의 성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⑤의 구읍성(舊邑城)은 뚜렷이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분명히 고려시대 이전의 고성(古城)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장기읍성 북문 웅성 축벽

장기읍성에 관한 지표조사는 당시 영일군의 의뢰를 받아,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1991년 4월 23일에 착수하여 그 해 6월 15일에 마쳤다. 그 결과 축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장기읍성은 세종 21년(1439)이라는 절대연대를 아는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연해읍성의 하나이다.

우선 이 읍성은 고려시대의 읍성이 가지는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한 조선왕조의 특징적 읍성이다. 이성의 축조는 세종대에 이룩되는 조선시대 읍성의 전형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완성된 제도로서 이행 과정에서 어떤 변용이 있었느냐를 실제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축성사적 중요성이 있다.

장기읍성은 당시 사용되던 지척(地尺, 고구려척 혹은 고려척, 1척은 35.56cm)에 의해 설계되어 문(門)과 체성(體城)이 축조되었다. 문구(門口)는 지척 10척을 기준하고, 성벽의 높이는 지척 12척을 기준하여 당시 가장 보편적인 축조방법인 내탁외축공법(內托外築工法)에 의해 축조된 것이다. 따라서 문헌에 보이는 16척 너비의 기단(5.7m)이 기준이 되고, 외측은 큰 돌로 쌓되 작은 할석(割石)으로 켜기 메움질 하고, 안쪽은 계단식으로 할석과 사토(沙土)로 메워 잔디를 입힌 규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당초 지척을 기준한 축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둘레를 3,664척, 높이를 12척으로 기록한 《경상도속찬지리지》였다.

장기읍성은 그 후 웅성(甕城)·치(雉, 敵臺)·여장(女牆)·해자(垓宇)등의 성곽의 부대시설을 덧붙이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전국적인 포백척(布帛尺, 세종 대에 이르러 사용, 1척은 46.73cm)의 사용 추이에 맞추었다. 따라서 완성 이후의 보완 시설의 확충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기록에는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여 둘레가 2,980척이고 높이가 10척이라 하였던 것이다. 체성과 문이 축조된 이후 웅성·여색·적대·해자 등의 부대시설은 세종 21년 이후 연차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체성을 완성한 뒤에 이러한 부대시설이 차츰 완비된 모습은 현존 유구(遺構)의 축조방법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용척(用尺)의 차이에서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읍성은 세종대의 축성 방식을 충실히 이행한 전형적인 것이며, 동시에 세종대 이후 문종~세조대에 이르면서 국방력의 강화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완성된 것이다. 읍치가 성내에 있어서 읍성이지 실상의 역할은 지세를 이용한 입보용산성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었다.

수구(水口)로 추정되는 동북 벽의 계곡 쪽은 현재 성벽이나 수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성의 지형은 서쪽이 가장 높고 수구 쪽인 동북 벽의 계곡 쪽이 가장 낮으며,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 가장자리가 높고 성내 가운데가 낮은凹형으로 지면이 되어 있어서 성내의 물이 지형상 계곡 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 배수시설(排水施設)을 다른 곳에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서문(西門)이다. 서문은 일시에 만들어진 다음 폐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폐쇄되었는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서문 폐쇄 이유와 관련해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경상도 연해 지역은 호랑이의 출몰이 잦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한다.

서문은 급경사로 이어지는 북문과, 주민들의 주 출입구인 동문과는 달리 장기의 진산인 해발 252m의 동악산 쪽과 제일 가깝게 접해 있다.

또한 1801년 장기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쓴 기성잡시(鬢城雜詩)를 통해서도 유추해 보면 예로부터 장기에는 호랑이가 많이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서문폐쇄도 이와 관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 외에 성내의 제반 시설 문제도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2) 영일읍성

영일읍성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국방력의 강화와 동시에 크게 확장되었으며, 그 축성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세종 7년(1425)에 나온 《경상도지리지》에 주위는 100보(步), 內廣(안 넓이)은 92복(卜), 우물이 1곳 있다.



- ②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둘레는 100보, 우물은 1개소, 석축이다.
- ③ 예종 1년(1469)에 지은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둘레는 2,914.9자, 높이는 12자, 우물은 3곳, 마르지 않으며, 석축이다.
- ④ 중종 25년(1530)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둘레 2,940자, 높이는 12자, 우물은 3곳, 석축이다.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2리 마을회관  
뒤편에 남아 있는 영일읍성 동벽의 흔적



● 영일 읍성 북쪽 성벽의 일부

앞의 기록에서 보듯 영일읍성은 국방력의 강화와 함께 확장된 전형적인 읍성이다. 이 영일읍성은 (사)東大海文化研究所가 포항시의 의뢰를 받아 1996년 12월 말~1997년 3월 말까지 지표조사를 하여 그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유구의 현황은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을 측량하였을 때 1,193m가 남아 있었다. 성을 쌓은 형식은 골짜기를 둘러싸는 포곡형(包谷形)이었다. 성을 쌓는 형식으로 볼 때 전면과 후면에 있는 두 개의 계곡을 둘러싸아, 입보용산성의 구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성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답으로 변한 곳은 남쪽 부분이고 동쪽은 마을로 이루어졌고 북쪽의 건물지가 밭으로 변하였고 북쪽의 나머지 부분과 서쪽은 산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성벽은 동쪽에 마을이 생긴 곳이 끊겨 있어서 동쪽에는 일부만 남아있고 북·서·남쪽에는 모두 남아있다. 문지(門址)는 4곳이며, 북문과 서문에는 옹성으로 축성하였고, 수구·여색·장대·해자 등의 시설을 하였다. 석축의 구조적인 공법은 내탁외축공법으로 바깥쪽만 석축을 이루고 안쪽은 흙과 잡석을 다져서 쌓아 올렸다. 큰 돌 사이에는 할석으로 췌기를 넣어 메움질을 하였다. 영일읍성의 석축 방식은 물림쌓기란 공법으로 아랫돌에 비해 윗돌은 1치 3푼씩 뒤로 물려 쌓아 전체적 성벽의 경사를 유지하게 하였다. 따라서 성벽의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 공법상의 배려인 것이다.

## 4. 교통과 통신

### 1) 역제와 송라철방도

조선전기는 농업중심의 현물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지방 도시와 상공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교역은 정기시와 행상에 의존해 있던 만큼 읍치를 비롯한 지방도시는 관아를 중심으로 한 정치 내지 행정도시에 불과하여 그 규모는 영세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통신·운수체제는 사회·경제상의 의미보다 행정·군사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수도 한양(한성부)을 중심으로 하는 철저한 중앙집권화라는 방향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양반관료국가를 지향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새로운 수도건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망과 역원제 및 봉수제까지도 모두 한성부를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정치·군사·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였다.

전국의 도로망이 모두 한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대·중·소로 구분되었고, 이러한 구분은 결국 한양과의 긴완도(緊緩度)에 따라 나뉘어졌던 것이며, 역(驛)·참(站)·원(院)등의 교통시설도 이러한 도로를 따라 설치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교통·운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과 조운제도였다. 역제는 일정 거리마다 역을 설치하여 말과 식량, 관리인을 두어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왕래와 숙박, 관물의 수송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서 487년(신라 소지왕 9)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고려 때 크게 발전하여 전국에 22역도와 525역이 설치되었으며, 이때 경주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안강·인비(기계)·육질(六叱, 신광)·송라 등의 참역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역제는 고려 때의 것을 답습하면서 다만 관리체제의 개편에만 주력하였던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수개 내지 수십 개의 역을 한 도(道)로 하여 역승(驛丞)을 두어 그 직을 맡게 하다가, 1457년(세조 3)에 역승을 찰방(察訪)으로 개칭하기 시작하여, 1535년(중종 30)에 가서 완전히 찰방체제로 바꾸게 되었다.

1425년의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난 이 고장의 역은 흥해군의 신역(新驛), 영일현의 대송역, 장기현의 신역, 청하현의 송라역, 기계현의 인비역, 신광현의 육역(六驛) 등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각 고장의 역은 《경상도지리지》의 것과 동일한데, 6개 처의 역 모두가 역승이 파견되어 있는 長水道(신령)의 소관 하에 있었다.

당시 전국 역의 총 수는 480개이며, 경상도는 151개로 10인의 역승을 두어 10개 처의 역도를 관할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를 보면 새로 생겼던 신역(新驛)들이 고유한 새 이름으로 명명되며 한편으로 역 사이의 거리가 명시되고 있어 조선전기에 이 고장의 역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영일만권의 참여

군 현 명	역 명	위 치
흥 해 군	망창(望昌)역	남쪽으로 영일현 대송역이 30리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 청하현 송라역이 18리의 거리에 있다. 서쪽으로 경주 임내 안강현의 경역(鏡驛)이 35리 거리에 있다.
영 일 현	대송(大松)역	동쪽으로 장기현 봉산역이 38리의 거리에 있고, 북으로 흥해군 망창역이 40리의 거리에 있다. 서쪽으로 경주 임내 안강현의 경역이 30리 거리에 있다.
장 기 현	봉산(峯山)역	북쪽으로 영일현 대송역이 45리의 거리에 있고, 서쪽으로 경주부 사리역이 87리의 거리에 있고, 서남쪽으로 경주의 조역이 86리의 거리에 있고, 남쪽으로 울산군의 부평역이 124리의 거리에 있다.
청 하 현	송라(松羅)역	남쪽으로 흥해군 망창역이 29리의 거리에 있고, 서쪽으로 경주 임내 신광현의 육역이 20리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 영덕현 남역이 40리의 거리에 있다.
기 계 현	인비(仁庇)역	기계현 서쪽 6리의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 청송 문거역이 65리의 거리에 있다.
신 광 현	육 ( 六 ) 역	동쪽으로 송라역이 20리의 거리에 있다.

이상과 같은 장수도 소관하의 이 고장 역제는 세조조에 와서 찰방제가 확립되면서 크게 변화 발전되었다.

이 고장의 송라찰방도(松羅察訪道)는 《세조실록》6년(1460) 2월 경상도의 安奇道(안동)소관의 영해부 영양(寧陽)역·병곡(柄谷)역, 영덕현 주등(酒燈)역·남(南)역, 장수도 소관의 청하현 송라역, 흥해군 망창역, 영일현 대송역, 장기현 봉산역(峯山驛 또는 大峯驛이라고도 함), 경주 조(朝)역·육(六)역, 黃山道(양산) 소관의 경주 노곡(奴谷)역·구어(仇於)역, 울산군 부평(富平)역·간곡(肝谷)역 등 총 14역을 합하여 송라도(松羅道)라 칭하고 새로 찰방을 설치하여 다스리게 하면서 비롯되었다.

영일만권에 종 6품직의 찰방이 다스리는 송라찰방도가 탄생되어 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울산의 총 15역을 관장하게 된 사실은 이 고장의 지리(地利)가 해방(海防)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괄목성이 인식된 결과로 이는 이 고장 역사의 중요한 한 갈피가 되고 있다.

당시 경상도에는 송라도와 함께 찰방이 다스리는 장수도(長水道)·사근도(沙斤道)·소촌도(召村道)·황산도(黃山道)·안기도(安奇道) 등 6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세조 8년 1월과 8월에 찰방이 관할하는 역이 너무 많고 거리가 멀고 역로가 조잔(凋殘)하여 1인의 찰방으로서는 이를 능히 두루 살필 수 없으

므로 대·중·소 역도 및 원근을 따라 매 1찰방도에 역승 1인을 더 두자는 병조의 계청(啓請)이 있어서, 세조 8년 8월 경상도에 5개 찰방도(장수도·창락도·김천도·성현도·유곡도)와 5개 역승도(사근도·소촌도·자여도·황산도·송라도)가 새로이 설치될 때, 송라역·남역·주등역·병곡역·영양역·망창역·대송역·화목역·문거역·청운역·봉산역·육역·각산역 등 13역을 송라도라 칭하고 역승(종 9품)을 두게 되었다. 이때부터 송라도는 역승도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국 41역도에 500여 역, 경상도에 찰방 5員(유곡도·김천도·안기도·장수도·성현도)과 역승 6원(송라도·창락도·사근도·자여도·소촌도·황산도)이 다스리는 148역이 설치되었다.(《경국대전》1485)

이후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역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군 : 망창역이 고을 동쪽 2리에 있다.
- 영일현 : 대송역이 현 동쪽 10리에 있다.
- 장기현 : 봉산역이 현 남쪽 3리에 있다.
- 청하현 : 송라역이 현 북쪽 1리에 있다.

본도에 딸린 역이 7이니 즉 병곡·대송·망창·주등·육역·남역이다. 역승 1명이 있다.

- 기계현 : 인비역(《경국대전》당시는 장수도의 소관역이었음)은 경주부와 76리의 거리에 있다.
- 신광현 : 육(六)역은 경주부와 75리의 거리에 있다.

1425년의 《경상도지리지》에 설치되어 있던 영일만권 6역이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었음과 아울러 이 고장의 대표적인 송라역은 조선전기 중에 때에 따라 그 관장영역을 달리하는 역승도 → 찰방도 → 역승도의 과정을 밟으면서 점차 관할역이 축소되어 이 고장과 인근의 7역만을 다스리는 역승도가 되었다가 1535년(중종)까지 전국의 역제가 찰방제로 개편될 때 다시 찰방도가 되어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조치되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된다.

한편 조선에 있어서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역에 있어서의 주요한 교통수단은 말(馬)이었다. 다만 고려중기 이전에는 역마의 사용이 비교적 관대하고 또 법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으나 원의 지배 이후로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엄격하게 행하여져 마패제의 시행을 보게 되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그 마패제(馬牌制)를 습용하여 마패 사용에 관한 제한이 한층 더 강화 정비되어 갔다.

《경국대전》병조 마패조에 의하면 역에는 마필과 역정을 두어 공문을 전달 체송하

는 동시에 공무로 여행하는 자에게 마필을 제공하고 또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으며 이 역로를 이용하는 것은 공용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용에 준하는 사용(私用)에도 이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역마사용의 증빙인 마패는 한 쪽 면에는 품수(品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사용 마필의 수를 새겨 놓고, 다른 쪽 면에는 자호(字號)·연월(年月)과 상서원인(尙瑞院印)이란 전자(篆字)를 인각한 구리로 만든 원패(圓牌)를 말하는 것이다. 왕족에 대한 마패는 이것과 또 달랐으니 대전(왕)·대비전(왕모)·중전(왕비)·동궁(세자)·빈궁(세자비)·세손궁·세손빈궁 등의 마패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로 일면에는 마수를, 타면에는 ‘마(馬)’ 1자만을 전서하였다.

중앙에서는 출장관원의 관품 등수에 따라 병조가 마문(馬文)을 발급하면 상서원은 이에 의하여 계문하여 마패를 발급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발마패(發馬牌)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계문(啓聞) 또는 진상할 필요 등으로 관원이 출장할 때 이것으로 발마하고, 회환문이 있으면 귀로에도 마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군정이 급할 때에는 쌍마를 사용하기도 하고, 포마문(鋪馬文)의 초면에 ‘긴급사’ 3자를 써서 주야 급주(急走)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필은 상·중·하 3등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마필의 수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달리 발급하였다.

그리고 찰방도인 본역에는 찰방의 집무실인 아사(衙舍), 중외사객(中外使客, 빈객)의 숙박처인 관사를 비롯하여 통인방·책방 등이 있었으며, 일반 역에는 사람을 수용하는 역관(驛館)과 말을 수용하는 마구(馬廐)도 있었다.

당시 송라찰방도의 정당(正堂), 즉 본역 집무실로는 임영각(臨瀛閣)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역촌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그 역과 관련이 있는 역리·역촌·역노비·일수(日守) 등이 거주하였고 일반 양민들도 거주하였다. 역촌에 거주하는 양민들은 주로 역리·역졸역(役)을 조역하면서 생활하였고 그 대신에 군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입마의 역을 지는 대신에 마위전을 받아 경식(耕食)하였다.

역의 시설에는 아사·관사·구사(廐舍)에 마신당(馬神堂)이 있고 큰 역에는 누정이 있었다. 이러한 곳에는 빈객이 왕래하면서 시를 지어 현판한 것이 많았다. 송라찰방도에는 관일루(觀日樓)라는 누정이 있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역은 교통운수를 맡은 기관인 동시에 하나의 특수 촌락을 형성하여 일반 촌락과 구분되었다.

역의 행정실무를 맡고 있던 역리는 군현의 향리보다 천시되었다. 군현의 향리가 범죄를 저질러 원악향리(元惡鄉吏)로 규정될 경우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도(道)의 쇠잔한 역(驛)의 역리로, 유형(流刑)을 범한 자는 다른 도의 쇠잔한 역의 역리로 영속하게 하였다.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역졸·역민 들은 일반 양민보다 천시되었기

때문에 일반 상민촌보다 한 단계 낮은 이른바 역촌으로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역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교통·운수상 매우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막대한 역전(驛田)이 배정되었고, 역의 대소에 따라 마필·역졸·역노비가 배속되었다.

## 2) 원

조선 시대에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던 시설로는 원(院)과 관(館)의 제도가 있었다. 빈객을 접대하는 각 주현의 관(客舍) 이외에 각 요로에 공사 여행자의 숙식을 위한 원우(院宇)를 설치한 것으로 이 제도는 고려 때부터 있어 왔으나 조선초기 세종조에 와서 거듭 정비하여 부근 주민으로서 원주(院主)를 삼고 元(位)田을 지급하여 이를 관리케 하였다.

역과 원의 관계는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공·사와 상·하의 관계로 원보다 역에 더 비중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원우는 고려시대의 사원 또는 선원(禪院)이 원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개인 소유의 주택 혹은 누정(樓亭) 가운데 원우로 개조된 경우도 있으며, 관가 혹은 개인이 주관하여 원우를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은 공용여행자와 상인 및 사용(私用)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나 피난길에 이용하였고, 각도 관찰사가 도내 여러 고을을 순시할 때 원에서 점심이나 마필을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신·구 관찰사(감사)가 도계(到界) 부근의 원에서 교대하기도 하였다.

이 원우는 각 고을의 수령이 자세히 살폈으며, 관찰사는 수령의 마음 쓰는 여부를 조사하여 출척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원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다. 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①여행 중 날이 저물어 큰 산과 재를 넘지 못하고 일시 유숙해야 할 경우에는 원이 산 밑이나 고개 마루에 위치하며, ②갑자기 홍수로 인해 하천이 증수되거나 범람할 때 여행자는 대피해야 하니 이 경우에는 원이 하천의 양안에 위치하며, 원은 다른 수륙교통시설과 병존하는 것이 보통인데 육로의 역참이나 해변의 포구 또는 해선의 승강처와 하천의 진(津)·도(渡)·천(川, 河川)의 절벽 밑 돌길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각 읍마다 원의 분포는 읍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주요 교통로가 아닌 일반 촌락에 위치한 원은 그 생명이 오래지 않아 조선후기에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조선전기 영일만권에 설치되었던 원은 다음과 같다.

## 영일만권의 원

문헌 군현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흥 해 군	釜 院 : 군 북쪽 장생리에 있다. 玉 山 院 : 군 남쪽 등명리에 있다.	釜 院 : 군 북쪽 7리에 있다. 玉 山 院 : 군 남쪽 29리에 있다. 余 川 院 : 군 동쪽 20리에 있다.
영 일 현	惠 濟 院 : 현 동쪽 외아곡리에 있다. 阿 彌 羅 院 : 현 서쪽 상단음리에 있다. 注 津 院 : 현 북쪽 외곡리에 있다.	惠 濟 院 : 현 동쪽 20리에 있다. 阿 彌 羅 院 : 현 북쪽 12리에 있다. 注 津 院 : 주진 북녘기슭에 있다.
장 기 현	毛 伊 峴 院 : 현 서쪽 정방리에 있다. 平 安 院 : 현 남쪽 적석리에 있다.	毛 伊 峴 院 : 현 서쪽 23리에 있다. 平 安 院 : 현 남쪽 15리에 있다.
청 하 현	古 縣 里 院 : 현 남쪽에 있다. 金 井 院 : 현 서쪽 건천리에 있다. 古 松 羅 院 : 현 북쪽 둔음곡리에 있다.	古 縣 里 院 : 옛 청하현에 있다. 金 井 院 : 현 서쪽 7리에 있다. 古 松 羅 院 : 현 북쪽 13리에 있다.
신 광 현	竹 洞 院 : 현 남쪽에 있다.	竹 洞 院 : 현 남쪽 5리에 있다.
기 계 현	仁 多 院 待 候 院 : 현 북쪽 지등촌에 있다.	仁 多 院 : 현 서쪽 13리에 있다.
죽 장 현		待 候 院 : 현 남쪽 20리에 있다.

영일현의 아마라원은 불교식 이름을 딴 것으로 원의 유래와 원의 설립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국에 아마라원(阿彌羅院), 미륵원(彌勒院), 약사원(藥師院)과 같은 불교식 이름의 원이 다수 있는 것은 이러한 원은 승려 또는 사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원을 건립하였거나 혹은 원주로 행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식 이름의 원은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1469)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의 ‘원’의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으나, 유독 흥해군에 새로운 여천원(余川院)이 생겨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여천원의 위치는 오늘날 포항시의 나루끝 지역이다. 이곳이 당시 흥해군과 영일현을 잇는 중요한 육로의 길목이 되면서 새로운 원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일현청에서 흥해군청으로 통하는 주된 길은 주진(注津, 형산포 하류의 도선소, 현 연일대교)에서 포항입구의 유강대교 부근 → 자명동(현 연일읍) → 학전동(연일읍) → 대련(현 흥해읍) → 이인동(흥해읍) → 성곡동(흥해읍)을 거쳐 흥해로 가는 길이었으나, 점차 오늘날의 포항 중심시가지역(탑산, 죽림산, 대흥산, 갈산(수도산의 기슭 아랫마을 지역)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육로가 형성되면서 왕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천원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 고증할 수 없는 실정이나 고로들의 전하는 말로는 현 포항시 덕수동의 덕수천주교회 자리라고 한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기계현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한 대후원(待候院)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죽장현에 속하게 된 것은 죽장이 부곡에서 현으로 이미 승격되었고 또한 월경지의 요건이 소멸됨에 따라 죽장현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방의 모든 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된 지 230여 년 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모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봉수

#### (1) 봉수제

봉수는 우역제(郵驛制)와 더불어 근대적 우편제도의 실시와 전기통신이 발명되기 전의 전근대국가에 있어서 가장 근간적이며 보편적인 통신제도로써 해안이나 육지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나 정식으로 법을 제정해 실시한 것은 고려 의종 3년(1149)이며, 조선조 세종 때 이를 계승 발전시켜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다.

봉수는 밤에 불로서 알리는 봉(燃烽, 연봉)과 낮에 연기로서 알리는 수(燔燧, 번수)를 합친 말이다. 그러므로 봉화란 말은 원래 좁게 야봉(夜烽)만을 가리킨 것이나 널리 주수(晝燧)까지 합친 뜻으로 쓰여져 고려 이래 조선에서도 흔히 봉화라고 통칭되었고, 간혹 주연(晝烟)과 야화(夜火)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야화보다는 주연이 바람·비·구름 등으로 가릴 경우 다른 봉수대에서 알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수로는 바람을 쉬이 타지 않는 낭분(狼糞)을 태웠으므로 낭연(狼烟)이라고도 불렀다하나 우리나라에서 낭연을 사용한 실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봉수제가 계승되다가 세종 때에 이르러 봉수제의 관계규칙을 새로 정하고 연대(烟臺)를 새로 축조하고 봉수선로(烽燧線路)를 일제히 획정하였다. 1419년(세종 1) 무사(無事) 때 1거(擧)로부터 적과 접전 때 5거에 이르는 거화법(擧火法)과 관계요원의 근무부실에 대한 과죄규정(科罪規定) 등을 정하였다.

1422년에는 각도의 봉수처에 연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화기 등 병기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병조로 하여금 의정부 및 육조와 함께 봉수를 정하게 하였다.

한편 1444년에서 1445년에 걸쳐 논의된 봉수구폐책(烽燧救弊策)은 봉수의 시설·관장·요원 및 봉수요원에 대한 처벌·행상(行賞)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봉수망을 유기적으로 정비한 일대 개혁이었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1447년(세종 29) 무렵에 확립되고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확정되었다.

조선 초기에 전국적 봉수조직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봉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봉화군(烽火軍)의 고역(苦役)으로 인한 도산(逃散)과 근무태만, 시설의 미비, 요원배치의 불충분, 봉수군에 대한 보급의 부족 그리고 자연조건의 장애로 후망이 불가능하거나 중도에 봉화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봉수의 허설화(虛設化)는 법령의 해이와 더불어 더욱 극심해져서, 을묘왜변이나 이탕개(尼蕩介)의 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고, 거화하지 않음으로써 봉수는 허구화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발제(擺撥制)가 등장하였으나 파발제는 관리들의 사목적 추구에 이용되어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봉수제는 점점 복구되었다. 숙종 이후부터는 무너진 봉대를 다시 쌓고, 봉수를 더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봉수군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포(收布)함으로써 봉수군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한편 <봉수변통론(烽燧變通論)>은 종래의 봉수제의 근본적 모순과 운영상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예이다. 이때 논의된 봉수변통론은 각자거화론(各自擧火論), 봉수의 이설(移設)과 가설, 마발(馬撥)의 배치, 화포설치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자거화론은 봉수를 차례대로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최초로 봉화를 올리는 봉수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거화하자는 것이고, 봉수의 이설과 가설은 봉대 사이에 간봉(間烽)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마발의 배치는 기존의 파발을 이용하자는 것이고, 화포설치론은 연대에 화포를 설치하여 소리로 신호를 보내자는 것이다. 봉수제는 파발·역참제도와 병행되면서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8로봉수는 현대적 전화통신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2) 종류

봉수는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과 연대의 설치지역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은 봉과 수인데 봉은 밤에 불로써, 수는 낮에 연기로써 알리는 방법이다.

연대의 설치지역에 따라서 경봉수(京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로 구분되며 시설과 정원, 요원의 처벌규정에 차이가 있었다. 경봉수는 중앙봉수로 서울 목멱산(木覓山)에 있었는데 이를 목멱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고 하였다. 연변봉수는 해륙변경(海陸邊境)의 제일선에 설치하여 연대라고도 했으며,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대다수였다. 포항 지역에 설치된 봉수는 연변봉수에 해당한다.

### (3) 관장

봉수는 중앙에서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에서, 지방에서는 수령의 직접 책임 아래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도절제사(都節制使)·순찰사(巡察使)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관장의 임무를 맡았다. 감고(監考) 책임으로 봉수대의 이상 유무를 유사시에는 즉시, 평상시에는 매 10일에 1회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이를 받아 유사시에는 즉시, 평상시에는 매월말마다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수령은 3·6·9·12월의 계월(季月)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봉화가 단절되었을 경우 수령은 곧 그 사연을 병조에 알려야 하며 관하 봉수의 잘잘못은 수령의 공과(功過)와 연결되어 있었다.

### (4) 거화 및 전보

국경의 중요한 군사정보는 그 정세의 완급에 따라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거화법에 의하여 전보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150년(의종 4)에 규정된 봉수식에 따라 4구분되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는 2구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1419년(세종 1)에 획기적 봉수제의 확립과 함께 5구분법으로 재 구분 되었다. 이때는 해상과 육상을 구별하여, 해상의 경우 평상시에는 1거, 왜적이 해중(海中)에 나타나면 재거(再炬),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거, 접전시에는 4거, 육지로 침입하면 5거로 하였다.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재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시에는 5거씩 올리도록 하였다. 거화법에 의하여 전달된 정세는 경봉수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지방봉수에서는 오장(伍長, 監考)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제일선 군사요새로서의 연대에서 적의 침입을 주위에 급히 알리는 수단으로 봉화 이외에 포성(砲聲)과 각성(角聲)이 병용되었다.

### (5) 봉수대의 시설

조선 초기에는 봉수대의 시설이 미비하고 경봉수·연변봉수·내지봉수에 따른 구별도 없었다. 1422년(세종 4)부터 봉수대의 시설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1438년 무렵 확립되었다.

- ① 연대 : 연변봉수에는 연대를 쌓고 연대 위에 임시집[假家(가가)]을 지어 화기 등 각종 병기와 생활필수품을 간수하게 하였다.
- ② 연조 : 내지봉수는 대부분 연대는 쌓지 않고 연조(아궁이)만 설치하였으며, 1475년(성종 6) 이후 모든 봉수에는 연조 위에 연통을 만들어 바람으로 주연이 흐려짐을 방지하였다.
- ③ 5 소 : 모든 봉수에는 봉수대가 5개 있었는데 이는 거수를 5구분하였기 때문이다.

- ④ 요원 : 봉수대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 봉화군과 오장 또는 오원이 있었다. 고려~조선 초기는 대상 근무자가 봉군뿐이었는데 1446년(세종 28) 무렵부터 감고의 제도가 생겼다. 《경국대전》에 감고는 오장으로 되어 있고, 경봉수의 오장은 오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에 봉군의 정원은 10명으로 하고, 매소(每所) 5명씩 상하양번(上下兩番)으로 10일씩 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지봉수의 정원은 매소 6명, 양번으로 3명씩 10일간 근무하고 교대하였고, 경봉수는 매소 4명으로 규정하였다. 오장은 연변봉수·내지봉수·경봉수 모두 매소 2명으로 상하양번이었다. 봉수군의 신분은 신량역천(身良役賤)이었다.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나, 국역담당에 있어서는 천인이었다. 봉수관계의 벌칙은 후망 또는 간망(看望)을 게을리 한 데에 중점이 두어졌다.

봉수대 입직 및 정원표

봉 수	봉군		감고(오장)		입직계	상하양번 10일교체	정원총수		
	每所入直	5所計	每所入直	5所計			봉군	감고	합계
연 변 봉 수	5	25	1	5	30	..	50	10	60
내 지 봉 수	3	15	1	5	20	..	30	10	40
경 봉 수	2	10	1	5	15	..	20	10	30

봉화군의 신분은 신량역천(身良役賤,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나 국역담당에 있어서는 천인의 역에 종사해야 하는 양인과 천인의 중간층)이었고, 오장은 봉군보다 우위의 신분이었으며, 갑사(甲士)를 오장(伍長)으로 삼았던 때도 있었다.

#### (6) 봉수선로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1446년(세종 28) 봉수에 대한 규정을 크게 개혁정비하면서 전국봉수의 선로별 성책(成冊)을 만들어 경외(京外)의 관아에 수장하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봉수조에 의하면 전국 5로의 주요선로(幹線)를 직봉(直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북동쪽 두만강변의 우암(牛巖, 慶興 西水羅), 남동쪽 해변의 응봉(應峰, 東萊 多大浦), 북서쪽 압록강변의 여둔대(餘屯臺, 江界 滿浦鎮)와 정주(靜州, 義州), 남서해변의 돌산포(突山浦, 順天 防踏鎮)를 기점으로 모두 서울의 목멱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직봉 이외에 간봉이라는 보조선이 각 직봉선상에 있었다.

《세종실록》원년 5월의 거화법을 보면, 평상시에는 일거(一炬)를, 적이 나타나면 2거를,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거를, 적이 국경을 범하면 4거를, 적과 아군이 접전하면 5거를 올리고, 흑 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바람이 세차서 연화로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로 약 7~12시간의 연계 끝에 당시 경(京)봉수가 있던 남산(木覓山)에 다다랐다고 한다.

이러한 5거법은 고려 말의 4거법 보다 세분되어 발전된 것으로 《경국대전》에서도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 (7) 포항의 봉수

전국의 봉수망이 새로이 확정된 것은 세종 28년 전후로 그 큰 테두리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봉수망이 새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영일만권의 각 고을인 흥해, 영일, 장기, 청하에 감고(監考) 1명과 군인(軍人) 5명을 수직군(水直軍)이라 하여 연해(沿海)의 민물(陸水)이 서로 통하는 곳에 배치해 밤낮으로 왜적의 침입을 경계하며 지키게 하였는데, 심히 고단하며 왜적에 잡혀갈 우려가 있고 법에도 다른 도(道)에도 없으므로 혁파하는 대신 연대(煙臺)를 높이 쌓아 해적을 망보게 했다고 한다.

세종 4년 8월부터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시작하여 세종 29년 3월경에 확립된 봉수대의 시설을 보면, 연변(沿邊) 봉수대에 연대(煙臺)를 쌓았는데 연대는 높이가 25자, 둘레가 70자, 연대 밑 4면을 길이 각 30자로 쌓고, 그 밖에 깊이와 넓이 각 10자의 참호를 뚫으며, 또 그 바깥 둘레에 3자 정도의 위가 뾰족한 말뚝을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으며, 연대 위에는 가가(假家)를 지어서 화기를 비롯한 각종 병기의 일상 생필품을 간수하였다. 내지(內地) 봉수에는 아주 위험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대를 쌓지 않고 연조(煙竈, 아궁이)만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성종 6년(1475) 이후 모든 봉수에는 연대와 아궁이 위에 반드시 연통을 만들어 풍랑으로 연기가 흐트러짐을 방지하였다.

봉수요원으로는 봉졸(烽卒)인 봉수(烽)군과 하급 장교인 오장(伍長, 監考) 또는 오원(五員)이 있었다. 봉화군은 주야로 주위를 후망하는 사람이고, 오장(연변과 내지봉수)과 오원(경봉수)은 봉화군을 독려, 감시, 보고하는 감독자였다.

봉수군과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의 거주인으로 충당할 것을 《경국대전》병전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근 지형이나 지역을 익히 알 수 있는 전술상의 이점과 출퇴근의 편의상으로 보아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영일만권은 지형상 일찍부터 해방요충지로 발전해 온 관계로 여러 곳에 봉수대가 설치되었으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봉수선은 동래에서 서울로 가는 제2로(路)의 직봉(直烽)에 연결되는 간봉(間烽)이었다.

#### ①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봉수구분

이 지역의 봉화는 기록상 ‘연대봉화’와 ‘봉화’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연대봉화는

정식 봉수로에 의한 거점봉화이며, 연대봉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긴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을 갖추었던 ‘봉화’로 구분하였던 것 같다. 연대봉화로는 흥해군의 지을, 오산, 영일현의 동을배, 장기현의 복길, 뇌산, 청하현의 도리산 봉화까지 6곳이 있으며, 연대봉화가 아닌 봉화로는 영일현의 사화랑, 장기현의 대곶, 사지, 장곡 4곳의 봉화가 있었다.

## ②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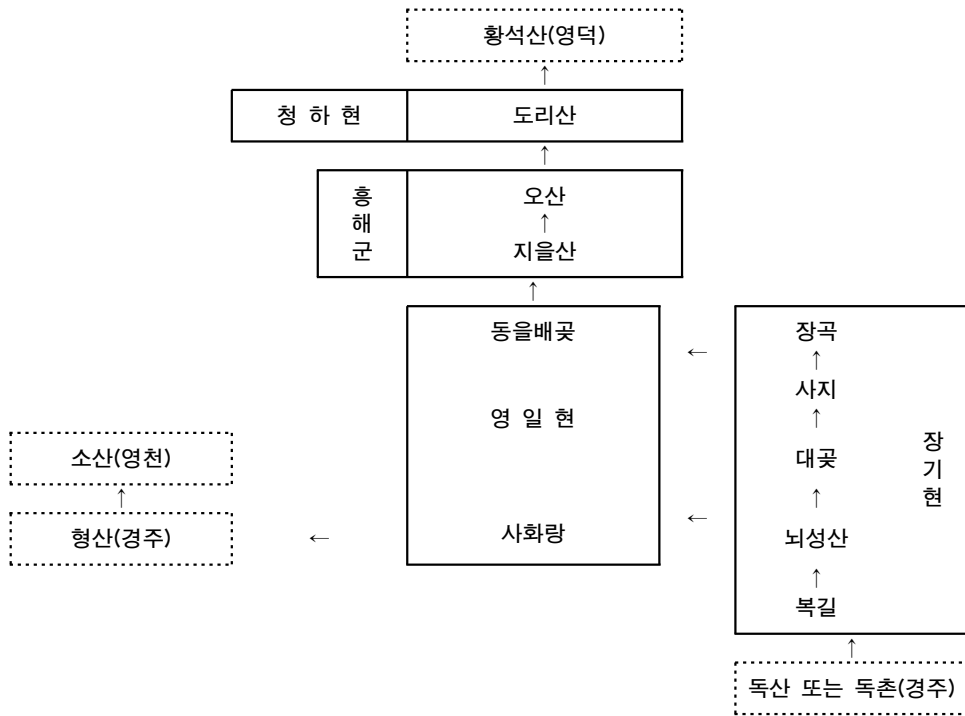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난 영일만권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 **흥해군** : 지을 연대, 오연대-2개처
  - 지을(知乙) 연대봉화 : 군동11(15)리 지점에 있으며, 남(동)쪽으로 수로 30리 지점에 영일현의 동을배곶(冬乙背串) 봉화에 응하고, 북쪽으로 오산(烏山)연대 봉화가 8리의 거리에 있다.
  - 오산(烏山) 연대봉화(오연대) : 남쪽으로 지을 연대봉화에 응하고 8리의 거리에 있고, 북쪽으로 21리 198보의 지점에 청하현의 도리산 봉화가 있다.
- **영일현** : 동을배 연대, 사화랑-2개처
  - 동을배 연대봉화 : 현동 30리 지점에 있으며, 남(동)쪽으로 5리의 지점에 장기현의 장곡(獐谷)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수로 30리 지점에 지을 봉화가 있다.
  - 사화랑재(沙火郎) 봉화 : 현동 20리 지점에 있으며, 남(동)쪽으로 15리 지점에 뇌산(磊山) 봉화가 있고, 서쪽으로 30리 지점에 안강현의 형산 봉화가 있다.
- **장기현** : 복길, 뇌산, 대곶, 사지, 장곡-5개처
  - 복길(卜吉) 연대봉화 : 현남 8(18)리 지점에 있으며, 남쪽으로 23리 지점에 경주부의 독촌 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20리 지점에 뇌산 연대봉화가 있다.
  - 뇌산 연대봉화 : 남쪽으로 20리 지점에 복길 연대봉화가 있고 서쪽으로 15리 지점에 영일현의 사화랑현(재) 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25리 지점에 대곶(大串) 봉화가 있다.(현북 48리 지점)
  - 대곶 봉화 : 남쪽으로 25리 지점에 뇌산 연대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사지(沙只) 연대봉화가 있다.(현북 55리 지점)
  - 사지 봉화 : 남쪽 5리 지점에 대곶 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장곡 봉화가 있다.(현북 34리 지점)
  - 장곡 봉화 : 남쪽으로 10리 지점에 사지 봉화가 있고, 서쪽으로 5리 지점에 영일현의 동을배 봉화가 있다.
- **청하현** : 도리산-1개처
  - 도리산 연대봉화 : 현북 8리 지점에 있으며, 남쪽으로 21리 298보의 지점에 흥해군의 오산 봉화가 있고 북쪽으로 31리 지점에 영덕현의 황석(黃石) 봉화가 있다

③ 영일만권의 봉수선로

《세종실록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기록은 《경상도지리지》의 것과 같 으며 단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만 몇 군데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거리를 밝 혀두는 정도이나, 대체로 《경상도지리지》의 것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앞의 기록에 의하면 영일만권의 각 봉수간의 거리는 5리에서 30리 사이로 되어 있다. 《경상도지 리지》에 보면, 연대의 경우 평균 10리 이내, 내지봉수의 경우는 가까우면 10리, 멀면 70리로 약 40~50리 정도가 많다.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 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나타난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봉수선로를 남쪽 에서 봉수가 올라오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봉수선로



앞의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봉수선로를 보면 장기현에는 5개의 봉수가 설치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상도에서 현단위로는 가장 많은 숫자로서 이 고장이 동 해안에 위치한 해방요지임이 일찍부터 인식된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에도 그 대로 계승되어 중요한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선인들의 지리에 대한 해안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

봉화는 국방상 중요한 통신 수단인 하나이므로 시대적으로 국방의 전략에 따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폐되기도 하였다. 영일만 권에서도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장기현에 설치되었던 5곳의 봉수 중에서 연대 봉화인 복길, 뇌산 봉화는 존속되고, 해안에 인접하여 첩병 역할을 하였던 대곶, 사지, 장곡 봉화는 철폐되며 이들의 역할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발산 봉수가 새로 설치되었다.

#### (8) 포항지역 봉수대 조사

포항에 있는 봉수대에 관하여 조사 계획을 세워 정밀조사를 하게 된 것은 2004년 12월 포항시가 동대해문화연구소에 봉수대 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포항시가 봉수대 학술조사를 용역 의뢰한 목적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함이었다. 문화유적 보호, 문화관광 단지 조성, 문화사업, 건설공사, 개발공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한 것이다.

50일간의 조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행한 정밀실측조사로 남구 8곳, 북구 4곳, 모두 12곳을 조사하였다.

##### ① 복길(卜吉) 봉수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1리 649 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상 규모는 둘레 1,620척(420m), 높이는 10척(3.3m)이었다. 이 봉수는 고려시대에 설치되어 조선 후기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고종 31년(1894)년에 폐지되었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봉수로상으로 봉수로 제2기에 속하는 연해봉수이며, 직봉이 아닌 간봉에 해당하며, 조선시대의 기록으로 별장(別將) 1명과 봉수군 100명이 주둔하여 근무하였던 곳이다. 설치될 당시 이봉수대를 관장하였던 장기현까지의 거리는 현의 남쪽 18리였다. 봉수의 응보관계는 남쪽으로 경주 독산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뇌성산 봉수에 응하였다.

##### ② 뇌성산(磊城山) 봉수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구룡포읍 성동리의 경계에 있는 뇌성산(212m) 정상부에 있다. 이 봉수대는 고려 현종 때 쌓은 뇌성산성안에 위치한다. 현재 잡목이 우거져서 현황파악이 어렵지만 일부 석축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상 규모는 둘레가 2,460척(750m)이며 높이는 10척(3.3m)이다. 고려 현종때 설치되어 조선 후기 까지 운영되다가 고종 31년(1894)에 철폐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별장 1명과 봉수군 100명이 주둔하였다. 이 봉수의 응보관계는 서쪽으로 영일현 사화랑산 봉수, 북으로 발산 봉수, 남으로 복길 봉수에 응하였다.

③ 대곶 봉수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1리 산65 번지이다. 석병1리의 잣밭마을 서편 해발 140m의 산 정상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상 규모는 둘레 500척(151m), 높이는 12척(3.6m)이었다. 이 봉수대의 존속기간은 조선초에 신설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조선후기 영조 21년(1765)에 철폐되었다.

신설될 당시 장기현에서의 거리는 현의 북쪽 48리였다. 남으로 뇌성산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사지 봉수에 응하였다.

실측결과 현재 배수로, 내환 및 봉돈시설이 있다. 할석으로 축조한 봉돈의 형태는 2단 원형석축으로 높이 3m, 지름 17m정도이다. 봉돈 내부 화구의 폭은 140cm 정도이며 깊이는 30cm이다. 내환 시설의 폭은 350cm, 배수로의 폭은 450cm이며, 북서편에는 배수로와 내환이 있다

④ 사지(沙只) 봉수

이 봉수의 소재지는 현재의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2리 산65번지이다. 사지봉수는 대보면 강사리에 있는 사지산 정상부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한 규모는 둘레가 500척(151m) 높이는 15척(4.5m)이다. 조선초기에 신설되어 조선 후기 까지 운영되다가 영조 21년(1765)에 철폐되었다. 이 봉수대가 신설되었을 당시 관장하는 장기현과의 거리는 현 북쪽으로 55리였다. 응보관계는 남으로 대곶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장곡 봉수에 응한다.

이 봉수대에는 오장(伍長) 2명, 봉수군 50명이 5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였다. 실측조사 결과 이 봉수대는 강사2리 언덕들 서쪽에 위치한 사지산 정상(141.8m)에 자연암반의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현재 봉수대는 붕괴가 심해서 원형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석축이 남아있다. 봉수대의 크기는 대략 지름 20m 정도이다.

⑤ 장곡(獐谷) 봉수

장곡 봉수의 현재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2리 산34번지이다. 대보면 구만리와 동해면 대동배리의 경계에 있는 봉화봉 정상(135m)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상 규모는 둘레 1,500척(454m), 높이는 15척(4.5m)이다. 조선초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다가 영조 21년(1765)에 철폐되었다. 설치 당시 관장하는 장기현과의 거리는 현의 북쪽 34리이다.

응보관계는 남으로 사지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영일현 동을배 봉수에 응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군부대가 있어 봉수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렵다.



## ⑥ 동을배곶(冬乙背串) 봉수

동을배곶 봉수가 있는 곳은 포항시 남구 대동배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의 기록상 규모는 둘레 700척(210m), 높이 15척(4.5m)이다. 조선초기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다가 고종 31년(1894)에 철폐되었다. 1832년의 영일현 지도에는 대동배(大冬背) 봉수로 표기되었으며 영일현에서 관장하였던 양봉대 중의 하나이다. 응보관계는 동쪽으로 장기현에서 관장하였던 장곡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영일만을 건너 흥해군이 관장하였던 지을산 봉수에 응한다. 이 봉수는 연해봉수이나 중계지 역할을 하는 내지봉수의 기능을 하였던 봉수이다.

## ⑦ 발산(發山) 봉수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와 흥환리 구룡포읍의 경계선상에 있는 발산(184m) 산정에 있다. 기록에 의한 규모는 둘레가 1,530척(409m), 높이는 15척(4.5m)이다. 이 봉수대는 조선시대 중기에 신설되어 조선후기까지 존속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철폐되었다.

이 봉수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봉수는 위치상 연해봉수이나 중계지의 역할을 하는 내지봉수의 기능도 하였다.

응보관계는 동쪽으로 동을배 봉수, 남으로 뇌성산 봉수, 북으로는 바다 건너 흥해군이 관장하는 지을산 봉수, 서쪽으로는 영일현이 관장하는 사화랑 봉수에 응한다. 실측 조사 결과 봉수대를 보호하는 담장과 입구 쪽에서 우물이 확인되었다.

## ⑧ 사화랑산(沙火郎山) 봉수

사화랑 봉수가 있는 곳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입암리, 상정리 경계에 있는 사화랑산 산정에 있다. 동해면 상정리의 공원묘원이 있는 봉수골 북쪽이다.

기록상의 규모는 둘레 600척(181m), 높이는 10척(3.3m)이었다. 조선초기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고종 31년(1894)에 철폐되었다.

응보관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쪽으로는 경주 형산(兄山) 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장기현 뇌성산 봉수에 응하였다고 하였다. 설치당시 영일현까지의 거리는 현의 동쪽 20리 거리였다.

이 봉수는 위치상으로는 연해봉수이나 내지로 전하는 내지봉수의 역할을 하는 봉수였다. 장기현 관장의 해변봉수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철폐되지 않고 존속하여 중시되었던 영일현 관할의 양봉대 중의 하나였다.

실측조사 결과 일부 석축으로 둘러진 외부 봉수터 윤곽만 확인된다. 전체적인 규모는 봉수 지름 20m, 석축 높이는 2m였다.

## ⑨ 지을산 봉수

지을산 봉수의 소재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산138-1번지이다. 이 봉수가 있는 곳은 포항시 죽천리에서 우목리를 지나가는 912번 국도변에 있는 지을산(92.2m) 정상부에 위치한다. 전해오는 이름으로는 봉우재 봉수라고도 한다. 기록상의 규모는 둘레 600척(181m), 높이는 14척(4.2m)이다. 조선초기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었다가 고종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설치 당시 이 봉수를 관장하였던 흥해군으로부터의 거리는 군 동쪽 15리 거리에 있었다. 조선시대 봉수로 중 제2거에 속하는 연해간봉에 속하며 응보관계는 동쪽으로 영일현의 동을배곶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같은 군에서 관장하였던 오산 봉수에 응한다. 실측조사 결과 현재 이곳에는 헬기장과 현대 분묘가 조성되면서 지형이 많이 변했으나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석축을 통해 봉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⑩ 오산(烏山) 봉수

오산 봉수가 있는 곳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69번지이다. 오봉산(180m) 정상부에 있다. 조선초기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다가 고종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기록상의 규모는 둘레 600척(181m), 높이는 15척(4.5m)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볼 때 응보관계는 남으로 지을산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청하현에서 관장 하는 도리산 봉수에 응하였다. 실측조사 결과 봉수대 주변지역은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봉수는 정상의 평탄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석축만 확인되었다.

## ⑪ 월포 봉수

이 봉수대가 있는 곳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1리 산11-1번지이다. 마을 북동쪽 월현산(月峴山 120.3m) 정상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응보관계는 남으로 오산 봉수, 북으로 도리산 봉수가 있는 중간 지점에 있어 여기에 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측조사 결과 봉수지 내부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다. 주변에는 건물지의 기단이 남아있으며,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3.3m, 폭 2.9m 정도이며, 봉수터에는 지름 4.5m 정도의 수혈 흔적이 남아있다.

## ⑫ 도리산(桃李山) 봉수

도리산 봉수가 있는 곳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1리 산42-1번지이다. 포항시 북구 화진리와 방석리 경계에 있는 봉화산(110m) 정상부에 위치한다. 기록상의 규모는

둘레 500척(151m), 높이는 12척(3.6m)이었다. 조선초에 설치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다가 고종 31년(1894)에 철폐되었다. 응보관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남으로는 흥해군 오산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영덕현 황석산 봉수에 응한다. 조선시대 도리산 봉수대에는 별장 1명이 봉수군 100명을 두고 5일마다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실측조사 결과 동쪽으로는 바로 동해가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평야가,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들이 있어 전망이 좋은 곳이다. 현재는 군부대의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봉화산 정상에는 봉돈(烽墩)과 외호(外濠)로 추정되는 남북 30m, 동서 18m, 높이 3m 정도의 유구가 있었다.

### ㉓ 입암 봉수

입암 봉수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1리 산68번지에 있다. 입암리 봉화봉의 정상(610m)에 위치한다. 봉수로상으로 보면 중계지에 해당하는 내지봉수이다. 해안에서 연락을 받아 안동(安東)으로 전하는 곳이라 전한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석축과 숲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헬기장으로 변하여 봉수지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봉수지의 규모는 남북 15m, 동서 12m 정도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慶尙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世宗實錄》·《慶尙道續撰地理志》·《增補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經國大典》·《東京雜記》.  
《近世朝鮮前期篇》·《韓國軍制史》，육군본부, 1968.  
朴洪甲, 《조선전기 역제소고》，영대대학원 석사논문, 1979.  
《조선전기 국방체제의 제문제》·《韓國史論》9, 국사편찬위원회, 1981.  
南都泳, 《李朝初期 馬政考》-특히 태조로부터 세종조를 중심으로-《조선시대 지방마정 조직에 관한 소고》,《史學研究》18호(신석호박사 화갑 기념 특집).  
趙炳魯, 《조선전기 驛吏에 대한 一考》，《남도영박사 화갑 기념 사학논총》，1984.  
최재경, 《조선시대 ‘院’에 대하여》，《영남사학》제4집.  
崔完基, 《朝鮮前期 漕運 試考》，《白山學報》제20호.  
李讚熙, 《朝鮮 前期 鹽干에 대한 研究》，《남도영박사 화갑 기념 사학논총》，1984.  
金在瑾, 《우리 배의 歷史》，서울대출판부, 1989.  
배용일, 《朝鮮時代 慶尙道 東海岸圈의 驛制研究》-松蘿察訪道를 中心으로-,《社會經濟論叢》2집, 포항대학, 1991.  
方相鉉, 《조선전기 수군제도》，민족문화사, 1991.  
《長鬐邑城 지표조사보고서》，경주문화재연구소, 1991.  
《浦項市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대송면, (사)東大海文化研究所, 1997.  
김용우, 《포항의 봉수대》·《東大海文化研究》제10집, 2005.  
이철영, 《朝鮮時代 沿邊烽燧에 관한 研究》，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 제3절 임진왜란과 이 고장의 창의

### 1. 임진왜란과 영일만권의 창의(倡義)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水軍)과 육지에서 일어난 각 지방 의병부대의 줄기찬 투쟁은 왜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전황은 호전되어 갔다. 정부의 모병에는 소극적인 민중들이었지만 스스로 향토와 국토의 방위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의병(義兵)은 전직 관료에서부터 양반·농민·승려·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초월하여 조직되었고, 이들은 관군과의 협동작전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 고장의 독립부대로서 또는 의병의 연합부대로서 왜병에 맞서 다양한 항전을 전개 하였다.

임진년(1592) 4월 14일 부산성을 함락한 왜군은 동래·기장·울산을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연달아 함락시킨 다음 20일에 이 고장으로 침입해 왔다.

당시 장기의 서극인(徐克仁)·이대임(李大任)·서방경(徐方慶) 등의 의사는 장기향교에 봉안된 오성(공자, 안자, 증자, 자성, 맹자)의 위패를 용암석굴 속에 숨긴 뒤, 의병 수백명을 모집하고 관군과 합세하여 장기성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왜군에 의해 경주성은 4월 21일에 함락되고 말았다. 경주성은 경주판관 박의장(朴毅長)과 장기현감 이수일(李守一)이 지켰으나 중과부적이었고 결국 기계(杞溪), 죽장(竹長)으로 일단 후퇴 하였다.

4월 25일에는 장기의 이대임, 서방경과 영일의 심희청(沈希淸) 의병장(義兵將) 등이 의병을 거느리고 알천(闕川)을 통해 경주로 들어가고, 기계 의병장 김광복(金光福)은 송화곡(松花谷)을 통해 경주로 들어가서 각 지역에서 모인 의병과 경주부윤 윤인함(尹仁涵)의 관군과 합세하니 병력이 3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마침 울산으로부터 북상하던 10여만 명의 왜군 2진과 일대 격전을 벌였고, 5~6차의 교전 끝에 왜적을 곤제봉(昆弟峰) 아래로 밀어냈으며, 의병은 이 전투에서 적 1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보다 앞선 4월 23일경 영일 의병장 김현룡(金見龍)은 동생 김원룡(金元龍)을 비롯한 사촌동생 김우호(金宇灑)·김우정(金宇淨)·김우결(金宇潔)과 정대영(鄭大榮)·정대용(鄭大容)·정대유(鄭大有) 등 정씨 3형제, 권여정(權汝精), 심희청(沈希淸), 김천목(金天穆), 안신명(安信明) 등 10여 명이 모여 의리로써 서로 맹세하기를 “국가가 위급함

을 당하는데 신민(臣民)으로서 어찌 보고만 있으리오. 신명(身命)을 바쳐 토적하리라” 하고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들은 동점(銅店)에서 병기를 주조하고 남정(南亭)에서 사격을 연습하여 출전 준비를 하였다.

4월 30일, 드디어 이들은 의병 500여 명을 거느리고 안강으로 진격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을 공격하여 100여명을 사살하였다. 때마침 두곡(豆谷) 가운데로 부터 왜적 수십인이 나오다가 우리 의병의 위세를 보고 바위 사이로 도망하였는데 이들도 의병이 포위하여 토벌하였다.

5월 17일, 흥해 의사 정인헌(鄭仁獻)·정삼외(鄭三畏)·정삼계(鄭三戒)·이열(李說)·최준민(崔俊民)·이대립(李大立)·안성절(安成節) 등 10여 인이 모여 의논하되 “왜적이 우리 강토를 유린하여 우리민족을 도륙하고 국보(國步)가 판탕(板蕩)하니 국가의 위급 존망(危急存亡)이 경각에 달렸다. 어찌 충의(忠義)를 아는 신민으로서 구국의 선봉에 나서지 아니 하리오” 하고 의병을 일으켜 토벌하기로 서로 다짐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재산을 털어 병기를 갖추고 모병을 하였다. 이어 군율을 정하고 전 병력을 불항(佛項)에 모아 진(陳)을 정비하고 출전 준비를 하였다.

6월 5일, 이 고장의 의병장과 의사들인 김천목·정대용·안신명·심희청·김현룡·권여정·김원룡·김우결·이대임·서방경·서극인·정인헌·호민수(扈民秀)·최흥국(崔興國)·박몽서(朴夢瑞)·이대립·정삼외·이화(李華)·이대인·진봉호는 다른 고장의 의병장과 함께 경주 남천(南川, 蚊川이라고도 함)에 모였다. 6월 7일, 경주관관 박의장(朴毅長)의 관군이 여기에 와서 합세하니 병력이 4,200여 명에 이르렀다. 6월 17일, 왜적 수천이 언양(彦陽)으로부터 남로(南路)로 돌입하여 경주로 들어옴에 의병 및 관군은 남천(南川)에 매복하고, 기타 의병은 금오산(金熬山, 경주남산)을 양편대로 나누어 매복했다가 돌과 활로 공격하였다. 왜군은 크게 패하고 놀라 대부분 서쪽을 통해 운문산(雲門山)으로 도망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왜군 400여명을 사살했다.

7월 25일, 신령 의병장 권응수(權應銖), 영천 의병장 정세아(鄭世雅)·정대임(鄭大任)이 영천성 수복전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경주에 진을 치고 있던 영일만권의 의병장인 이대임·서극인·김현룡·김우결·심희청·최준민·정삼외·정삼계·정인헌·박몽서·이열·이대립·진봉호(陳奉扈)·이대인(李大仁) 등은 각각 정병 300명씩을 거느리고 영천성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군토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의병을 거느리고 영천으로 진군하여 경주·신령·하양의 관군과 영천 및 각 지역의 의병과 합세하였다.

7월 26일, 전열을 정비한 아군은 일제히 성을 포위하며 공격하여 백병전을 벌였고, 미리 준비한 나무에 불을 지르니 화염이 영천성을 뒤덮었다. 이 공격에서 밟혀 죽은

자와 불에 타서 죽은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수급된 왜군의 머리는 517과였다고 한다. 경상좌도의 여러 읍이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천성 전투의 승리 덕분이라 한다.

영천성 수복으로 사기가 크게 고조되자 경상좌병사 박진(朴晉)은 용기를 얻어 경주성을 수복하기로 하고, 모든 읍의 관군을 좌병영이 있는 안강(安康)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8월 20일에 이 고장과 영천 의병들이 좌병사 박진과 판관 박의장의 관군과 합세하였다.

이렇게 모인 의병은 영천 의병장 정세아가 거느린 5천 명을 위시하여, 인근 16읍에서 모인 1만여 군사와 형산강 좌안으로 해서 경주성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호명(虎鳴, 안강현 입내) 부근에서 영일·장기·흥해·청하 등지에서 온 4천여 의병이 합세하니 37,000여 명이 되었다.

8월 21일, 드디어 4월 21일 왜군에게 무혈점령 당하다시피 했던 경주읍성에 대한 수복 작전이 전개되어 적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1차 경주읍성 수복전투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사기가 높았음에도 언양으로부터 왜군지원군이 들어오고 전략·전술의 미숙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애석하게도 이 고장의 의사 김우호·이봉수(李鳳壽) 및 영천 의사 정선번(鄭宣蕃) 등이 전사하였으며, 박진의 주군력 600여 명, 인근 각 주군 의병 1,500여 명이 희생되고, 왜병의 전사자도 60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니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박진은 제1차 경주전투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강 본진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경주탈환의 결의를 굳게 하고 다시 군사를 수습하여 성을 탈환할 것을 계획하였다.

9월 7일, 제2차 경주성 수복전투가 시작되었다. 박진은 경주 판관 박의장으로 하여금 정예군사 1천여 명의 선봉군을 거느리고 일몰과 더불어 경주 북성 밖에 진출하여 공격 포위케 하면서 겸하여 본군 4천여 병력의 진출을 엄호케 하였다. 적에게는 조총이라는 병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화포공 이장손(李長孫)이 새로 발명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라는 강력한 신무기가 있었다. 이 때 아군은 은밀히 성 밑으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비격진천뢰를 사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왜군의 방어전도 만만치 않아 전투는 다음날 밤까지도 계속 되었고 9월 8일에 결국 적들은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경주성은 수복되었다.

경주성을 수복함으로써 조선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고 왜군의 전략전술에 큰 타격을 주었다.

경주성을 수복한 이 고장의 의병장들은 의병을 거느리고 형산강 위로 이진하여 병사를 정비하니 그 사이 전사자가 과반에 이르렀다. 이 때 근읍의 의사들이 병사를 많

이 보충해 주었다. 경주 의사 22명과 청하 의사 김문룡(金文龍)·김득경(金得鏡)·이인단(李仁搏)·김성운(金聖運) 및 흥해 의사 이재화(李在華) 등이 진중에 와서 만났다.

1592년 12월 명나라의 이여송이 4만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으며, 이듬해 1월에 의병·관군·명군의 연합으로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1593년에는 적의 도발이 줄어들어 2월에 이르러 흥해 의병은 불항(佛項, 불목)으로 이진하고, 영일의 의병은 행산(杏山)으로 이진하였다. 행산은 골이 많아 군사가 매복하기 좋았고 적병이 습격해오면 공격하기가 용이한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자리였다.

2월 21일, 영일의 김현룡, 권여정, 김우정, 김우결, 김천목과 장기의 이대입, 서방경과 흥해의 정삼고, 청하의 김문룡 등 이 고장 의병장들은 문경과 상주의 접경지인 당교(唐橋)에서 안동등지의 의병장과 회맹하고 10여 차례의 격렬한 전투 끝에 외적을 격퇴하였다.

1594년 정월에 홍의(紅衣)장군 곽재우(郭再祐) 의병장이 악견산성(岳堅山城)을 수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고장의 의병장들은 각각 수백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악견산성으로 진군하였다가 중도에서 다시 안강으로 환둔하였다. 25일에 의병장 정인현·이열·이질(李陟)·최흥국·정삼외·권응복·이화·박몽서·진봉초·이대립·최준민·이영춘(李榮春)·정삼고(鄭三顧)는 울산으로 진군하여 도산(島山)의 적을 대파하니 적이 바다로 도망하였다.

안강은 적이 지리적으로나 전략상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 이 고장 의병이 다른 지방으로 출동하면 적이 자주 침입하여 들어왔다.

6월 5일에 적 수천이 아군이 주둔해 있는 것을 모르고 흥천(洪川)으로 진군해 왔다. 의병장 권응수 등이 이끄는 군사들이 적과 치열한 전투 끝에 적을 물리쳤다. 후퇴하는 적들이 형산강까지 내려왔을 때 이 고장의 의병장들은 군사를 형산강 양 언덕에 매복하고 적이 강어귀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형산강구 깊숙이 들어왔다. 이 때 우리 군사는 기를 흔들고 방포(放砲) 소리를 신호로 하여 강의 양 언덕과 산에서 일제히 공격하였다. 적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돌아서려 하는데, 흥천에서 추격하여온 군사가 뒤에서 공격하니 협공을 받은 적은 퇴로가 막혀 강물에 빠져 죽거나, 혹은 사살되어 전멸되니 시신이 강을 메우고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이날의 전과는 도원수 권율(權慄)에게 즉시 보고 되었고, 순찰사 서성(徐滄)이 상계하여 조정이 크게 치하하였다 한다.

이 고을 의병장들은 수년간 안강·경주·울산·영천·대구 등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적을 토벌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고장의 의병 또는 관군과 합세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적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주 각 고장의 의병장들과 회맹(會盟)하였는

데, 제1차는 1596년 3월 3일에는 대구 공산성에서 회맹을 가졌으며, 제2차는 같은 해 9월 28일에 영일만권의 의병장과 인근 13읍의 의병장이 팔공산에 회맹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적을 토벌하기를 의논하였으며, 제3차 회맹은 정유재란이 터져 왜군과의 결전이 한창이던 1597년 3월 22일에 다시 이 고장 의병장과 여러 고을의 의병장이 팔공산에서 회맹하였는데 그 수가 208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 2. 왜군의 재침과 이 고장의 의병

1597년 7월, 명과 일본사이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그동안 본국으로 철수했던 왜적은 병력을 증강하여 정유재란(丁酉再亂)을 일으켰다. 당시 의병장 곽재우는 방어사로서 창녕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중점적으로 수비하고 있었다. 이 때 흥해 의병장 정삼외, 장기 의병장 서방경도 의병을 거느리고 곽재우와 회맹하여 화왕산성 사수를 결의하였다. 만반의 결전태세를 갖춘 화왕산성의 함락이 어려운 것은 깨달은 왜적은 우회하여 거창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였다.

9월 2일, 이 고장 및 각 지역의 의병들은 감사 이용순(李龍淳)이 지휘하는 관군과 합세하여 달성에 있는 적의 대병과 교전 끝에 적을 진멸하였다.

9월 6일, 영일만권의 의병들은 영천에 유진하였다. 이 때 영천에는 많은 지역의 의병장들이 모여 들어와 전국 의사 701인이 동맹하였다. 적장 가토오기요마사(加藤清正)가 대병을 이끌고 성 밑에 이르러 성을 포위하였으나 우리 의병장과 군사가 사기충천하여 결사 항거하니 그 위세에 놀려 피해가고 말았다.

울산의 도산성(島山城)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적장 가토기요마사가 7년 걸려 구축한 성으로서 왜적의 대군이 주둔하여 근읍을 자주 침략해 왔다.

11월 7일, 이 고을 의병장들이 김응서 장군과 협력하여 도산성을 공격하여 대격전을 벌였다. 이 때 역전의 영일 의병장 김우정, 김우결이 전사하자 초혼(招魂)하여 돌아왔다.

12월 22일, 명나라의 경리 양호(楊鎬), 총병 마귀(馬貴), 부총병 이여매(李如梅)의 대군이 남하하여 경주에 주둔하였고, 여기에 우리의 관군 및 열읍의 의병과 합세하니 20여만의 연합군이 편성되었다. 이어 도산성 공략에 들어갔으며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혈전이 계속되었다.

1598년에 이르러 적은 기세가 점점 쇠진하여 갔고, 8월 18일에 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병사하였다는 밀보를 받아 철병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삼천리강토를 초토화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했던 7년간의 왜란도 끝이 나게 되었다.



영일만권의 동해안지역은 예로부터 왜의 침입경로지역으로서 여러 차례 수난을 겪어왔으며, 임진왜란 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당시 연해읍에 왜군의 후방 보급부대가 상륙하여 격전을 치렀을 것으로 짐작되거나 자료의 영성(零星)으로 이를 밝힐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방면의 이해에 길잡이가 되는 고로(古老)들의 전언이나 그 때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을 통해 그러한 사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왜의 보급부대가 송라면 화진 백사장에 침입하여 상륙해 주둔하면서, 이 지방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자 송라찰방의 관원, 도이봉수대 봉군, 그리고 이 고을의 의병들이 합세하여 송라면 대전리 대동숲에 복병하여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야간에 왜군 보급부대를 습격하여 이튿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3전 3승의 혈전을 거듭 하였다. 이 때 피아간 상당수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임란 후 청하군수가 이 지역에서 전사한 아군의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한다.

당시 대동숲에 주둔한 의병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때 판 것으로 보이는 우물이 있어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이 우물을 군정수(軍井水)라 부르고 있으며, 이곳의 물은 논 5~6마지기의 관개수로 사용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명천으로 알려져 왔으며, 또한 왜군의 약탈 방화가 극심하여 군사상 중요 서류를 감춰두었다는 서장고(書藏庫)라는 석굴이 있어 온 것은 왜군과의 격전을 암시해 주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화진 백사장에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만 해도 북풍이 강하게 불어 모래가 사방으로 날려진 후에 유골이 노출되고, 활촉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이후 한동안 이곳[大津]을 골곡포(骨谷浦)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마을 북쪽 백사장에서 왜병과 우리측 군사·의병들이 대혈전을 벌여 그 죽은 자들의 유골들이 바람에 모래가 쓸려 나가면 곳곳에서 노출된 데서 불려진 지명이다.

이곳 주민인 고 권명술(權命術)씨에 의하면 1929년경만 해도 화진 모래사장에 인골이 나뒹굴고, 어떤 장소에는 인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며, 활촉도 간간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조선총독부 발간의 책명 미상의 한 역사책에 화진사장이 임진왜란 격전지로 서술된 것을 읽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방증(傍證)을 여러 기록과 연결 종합해 봄으로써 임진왜란시 영일만권 전쟁양상과 함께 이 고을 백성의 숫구치는 조국애와 향토애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임진왜란 때 의장과 의병으로서 또는 관군의 일원으로서 공을 세운 분들을 고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고을의 임진왜란시 유공자(無順)

군·현명	유공자 명단
흥 해	정인헌(鄭仁獻), 정삼외(鄭三畏), 정삼계(鄭三戒), 정삼고(鄭三顧), 이 열(李說), 이 돈(李墩), 이 질(李晳), 이대립(李大立), 이대인(李大仁), 안성절(安成節), 최준민(崔俊民), 이 화(李華), 호민수(扈民秀), 최흥국(崔興國), 박몽서(朴夢瑞), 안 섭(安燮), 진봉호(陳奉扈), 이영춘(李榮春), 이재화(李在華), 권응복(權應福), 류복례(柳復禮), 안연절(安年節)
영 일	김현룡(金見龍), 김원룡(金元龍), 권여정(權汝精), 김우호(金宇灝), 김우정(金宇淨), 김우결(金宇潔), 이몽태(李夢台), 구 명(李 追), 김천목(金天穆), 안신명(安信明), 심희청(沈希淸), 정대영(鄭大榮), 정대용(鄭大容), 정대유(鄭大有), 김진성(金盡誠)
장 기	서극인(徐克仁), 이대임(李大任), 서방경(徐方慶), 이 놀(李 訥), 김경록(金景(慶)綠), 황세헌(黃世獻), 황보억(皇甫億), 황보순(皇甫淳), 정유서(鄭維瑞), 정유록(鄭維錄), 박문우(朴文虞), 오 탁(吳 卓)
청 하	윤 락(尹 洛), 김문룡(金文龍), 김득경(金得鏡), 이인단(李仁搏), 김성운(金聖運), 정의국(鄭義國), 이 겸(李 謙)
기 계	김광복(金光福), 이순성(李循性), 이복성(李復性), 이안성(李安性), 이선조(李善祚), 이광진(李光震), 구 명(李應男)
신 광	이선택(李宣澤), 이선중(李善中), 이방린(李芳隣)
출 신 지 불 명	이응수(李應壽), 이봉수(李鳳壽), 최신린(崔臣隣), 최극기(崔克淇), 전유추(田有秋), 김덕주(金德珠), 서첨민(徐添民), 김덕장(金德璋), 김덕황(金德瑋)

이 가운데 김현룡·정삼외·정대영·정유서·이복성 등의 의병장들은 형제 등 인척과 함께 활동하여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김현룡 의병장이 의병활동의 공으로 만호의 벼슬을 제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의병장들이 선무원종(宣武原從) 공신으로 포상을 받아 그 뜻이 기려지고 있다. 경상도 지역은 적의 주력이 통과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치욕적 패배가 충성심과 자존심이 강한 영남지방의 사림을 자극해 그 다수가 무장항전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주부 관할이던 우리지역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파도와 해풍을 이겨내며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이 지역의 민중들을 의병으로 조직하여 뛰어난 전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金水月齋見龍日錄》, 《李愛日堂說日錄》, 《李大任日錄》, 《李南岡汝良日錄》, 《李忠毅公致遠日錄》, 《柳松濠汀日錄》, 《李詠風亭繼秀日錄》,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崔東輔, 《龍蛇日記》  
 郭珍坤, 《龍蛇世講錄》  
 近世前期篇 震檀學會, 《韓國史》, 1962.  
 近世朝鮮前期編, 《韓國軍制史》, 1963.  
 李炯錫, 《壬辰戰亂史》상권.  
 朴一天, 《日月鄉誌》, 1967.  
 鄭東烈, 〈壬辰亂 우리 地方倡義史〉《浦項文化》, 제2호 1987.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한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2003.  
 崔孝軾, 《壬辰倭亂期 嶺南義兵研究》, 국학자료원, 2003.

## 제4절 경제생활

### 1. 농업

조선은 재정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농경기술의 개량과 농경지 확대 및 수리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태조는 1395년 전국 수령에게 명하여 현지의 전직 관료를 권농관(勸農官)에 선임하여 제언(堤堰)을 수축하게 하고, 뒤에는 이것을 수령의 책임으로 하여 매년 춘추에 정기적으로 보수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제언과 비보소(裨補所)의 숲인 임수(林藪)에서 벌목 경작하는 자는 엄벌케 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의 수리시설이 점차 정비되어 갔다. 이 결과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나타난 이 고장의 제언과 그 관개결수는 아래와 같다.

영일만권의 제언과 관개 결수

군 현 명	위 치	제언명과 관개결수
흥 해 군	군 내	西林里堤: 25결 5부, 城隍堂堤: 7결, 末文洞堤: 6결 46부 客谷洞堤: 11결 11부
	군 북	頓角里堤: 16결 25부, 下頓角里堤: 24결, 自山里堤: 25결 32부, 三海獻堤: 15결, 耳谷里堤: 11결 16부, 同里刀堤: 14결 45부 長生里堤: 315결 58부, 載內里堤: 9결 66부
	군 동	牛峴堤: 15결 5부, 丐爾末堤: 10결 55부, 針村里堤: 12결 20부 小針村堤: 9결 6부, 沓達堤: 7결 32부, 濟非堤: 6결 42부, 南述堤 20결 60부
	군 서	城下里堤: 5결 10부, 草谷里堤: 7결 51부, 下草谷堤: 12결 30부 白也堤: 4결 95부
영 일 현	현 내	伐堤: 148결
	현 동	助伊堤: 25결, 釜堤: 12결, 蓴堤: 3결 54부
	현 서	末應升堤: 22결 65부
	현 북	大堤: 18결, 大暫里堤: 5결, 內隱谷里堤: 16결, 爾谷里堤: 8결
청 하 현	현 내	乍邑谷里新堤: 13결 80부
	현 남	於火谷堤: 14결 47부, 城谷堤: 14결 35부, 都北堤: 10결 80부
기 계 현	현 북	馬苑堤: 12결 75부, 廣興堤: 17결
	현 동	池上寺堤: 14결, 踏溪堤: 14결
	현 남	瓦窯堤: 11결 87부
신 광 현	현 북	大池堤: 16결 18부
	현 동	於郎堤: 5결
	현 서	得良堤: 3결 80부, 大堤: 20결 80부, 泉洞堤: 4결
	현 북	頓第堤: 8결, 至德堤: 3결 70부, 吾也堤: 3결 50부 大至德堤: 25결

장기현은 이 고장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아 수전(논)이 적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제언이 있었을 것인데, 장기현의 제언과 관개 결수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누락되어 있다.

흥해군은 제언(堤堰) 수(數) 23, 관개(灌溉) 결수(結數) 593결 54부이고, 영일현은 제언수 9, 관개결수 258결 19부이고, 청하현은 제언수 6, 관개결수 83결 17부, 기계현은 제언수 4, 관개결수 56결 5속(束)이고, 신광현은 제언수 8, 관개결수 73결 8부이다. 이 가운데 흥해의 장생리제와 영일의 별제가 대표적인 제언이었다.

당시 “我國田制 10束爲卜 百卜爲結 每五結以係之以字號 分屬千名處”(《세종실록》 18년 9월)라든지, “今五結爲一字”(《반계수록》권1 田制上分田定稅節目條)라 한 사실을 보아 선초부터 5결 단위로 작정(作定)한 것으로 보인다. 작정한다는 것은 곧 양전(量田)하여 전적(田籍)에 등록함을 뜻하는 것이고 작정성적(作定成籍)이 되면 비로소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민 가운데 일단 호적에 등재되면 거기에 부응한 역(役)이 부과되었다. 전지 가운데 진지(陣地), 신개간지 등은 작정성적되기 전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민 가운데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정은 역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민 → 편호(작호) → 과역
- 토지 → 작정 성적 → 과세

호는 이상과 같은 의미 외에도 군역과 결부되었을 때는 정규병을 뜻하여 호수와 봉족을 ‘戶·保’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은 과전법(科田法) 실시로 많은 무전농민(無田農民)을 자작농(自作農)으로 상승시켜 15세기 중엽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자작농이 전농민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었고, 전국의 경작면적도 1,632,006결로 과전법 실시 당시보다 2배나 증가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32)에 실린 우리고장 각 군현의 간전(墾田)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고을의 간전 현황

군 현 명	간 전	간전 중 수전(논) 비율
흥 해 군	1,913결	5/9보다 적다.
영 일 현	2,016결	2/5가 넘는다.
장 기 현	1,264결	1/4
청 하 현	799결	1/3

두 기록을 살펴보면 영일만권은 동해안지역으로 다른 내륙지방보다 토질이 척박하고 농토의 면적이 좁았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흥해군과 영일현이 장기·청하·신광·기계현에 비해 제언이 많아 수전 비율이 높았고, 따라서 경작 가능 면적이 넓었던 것이다.

농본사회에 있어서 호구수와 전결수는 정비례적인 관계를 지니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감이 그 고장의 읍세와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밝힌 각 고장의 토질·물깊이·기후·풍속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은 각 지역의 농업생활의 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고장의 농경환경과 풍속

군 현 명	토 질	물 깊 이	기 후	풍 속
흥 해 군	비척상반(肥瘠相半)	얕음(水泉 淺)	풍기 난(風氣 暖)	속상무예(俗尙武藝)
영 일 현	비옥(肥沃)	깊음(水泉 深)	"	속상검술(俗尙儉率)
장 기 현	"	얕음(水泉 淺)	"	속상강한(俗尙强悍)
청 하 현	척박(瘠薄)	"	"	속상무예(俗尙武藝)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일현의 수심이 유독 깊다(水泉 深)고 표현된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일현은 형산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이며, 낙동강과 섬진강 수계(水系)에 있는 고을도 《경상도지리지》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다.

풍속은 이 고장의 다른 지역이 강함, 무예, 사나움 등을 숭상한다고 표현되었으나 영일현은 절약하고 검소하다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 제언의 축조에는 보(淤, 川防)에 비하여 공역(工役)이 훨씬 많이 투입되고 또 규모가 적어 조그만 한밭에도 쉽게 고갈되었던 것이며, 또 토호들에 의해 점유되었기 때문에 한밭시 관개용으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보가 오히려 농민에게 인기가 있었고 대소 하천의 상류 또는 중류 지역에, 혹은 산간계곡에 보를 만들어 인수(引水) 관전(灌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수리시설에는 제언과 보외에 구거(溝渠, 도랑)와 방제(防堤)가 있었다. 구거는 제언과 보의 부속물이며, 방제는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쌓은 둑을 의미하였다.

## 2. 어업

영일만을 중심으로 남북의 긴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영일만권은 한란 양 조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서 수산동식물의 서식 및 내유(來遊)에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그 종류가 다양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수산자원, 특히 연안어장의 자원은 오늘날과 비교가 안될 만큼 풍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로기술 수준이 낮았고 어획 노력도 과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해 연안 주민들의 어업생활은 영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어량(魚梁, 세종 때 이후부터는 어전(漁箭)으로도 기록되고 있으며, 어전어업이 당시 대표적인 어업이었다)으로는 흥해군의 두모적해(斗毛赤海, 오늘날의 포항시 북구 두호동 앞바다)와 포이진(包伊津, 현 북쪽), 영일현의 임곡포, 장기현의 양포와 송길포(松吉浦), 청하현의 개포(介浦)가 꼽히고 있다.

어량은 고려시대 주요 어업의 하나로 조선시대에도 성한 것으로 밭을 세워서 고기를 잡는 정치어구(定置漁具)의 일종이다. 말하자면 연해나 하천에서 고기 잡는 방법으로서 물을 한 줄기만 흐르도록 물살을 막고, 그곳에 통발이나 살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이다.

후기할 수취제도의 토산공물이나 토산조에서 살피겠지만 여러 수산동식물이 영일만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흥해군의 어량에서는 청어·광어·대구어, 영일현에서는 청어·대구어·광어, 장기현에서는 대구어·광어·청어·송어, 청하현에서는 대구어·광어·고등어가 많이 잡힌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당시 영일만 해면어업의 대표적인 어종이 청어·광어·대구어 등이고 담수어의 대표적인 어종이 은어·송어 등이었다. 이러한 어항은 내수면어업이 해면어업의 비중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해면어업이라 할지라도 이때에 있어서는 내만(內灣)과 천해(淺海)등 육지에서 근접된 연안에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 어업의 기술적 미숙성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 청어가 당시 다산 어종이었다는 것은 비상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일현 산천조에는 형산포 하류 주진(注津)에서 매년 겨울이면 청어가 맨 먼저 잡힌다 하는데 먼저 나라에 진헌(進獻)한 뒤에 모든 읍에서 이를 잡기 시작하며, 그 산출의 다소(多少)에 의하여 그해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그런데 청어자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종실록》 6년 4월의 “서해안의 위도(嵎島)에서 한 때 청어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기록과 《지봉유설(芝峰類說)》 권20 <인개(鱗介)>의 “서

남해안에 다산하던 청어가 선조 3년부터 산출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어류 외에도 각종 수산동식물이 채포(採捕)되는 가운데, 특히 연안 정서성(定棲性) 동물인 전복·조개 등의 패류와 미역·김 등의 해조류가 많이 채포된 사실은 당시의 어업수준과 규모를 반영해 주는 것이 된다.

조선 초기 어세의 세율은 어획고의 1/10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으나, 각 관 수령의 불법적 세금징수로 어민의 실제 부담은 막중하였다.

### 3. 제 염

이 지역의 해산물 중 특산물로는 대구어·청어·광어 등의 어류와 미역·파래 등의 해조류 이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종류의 하나가 소금(鹽)이다.

《경상도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의하면 흥해군의 염소(소금 굽는 곳)로는 검단리(檢丹里)·칠포(漆浦)·지을포(知乙浦)·여천리(余川里) 4개소에 자염부(煮鹽釜 : 바닷물을 끓여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가마) 4쌍(1雙은 兩隻)을 두어 공염부(貢鹽釜 : 稅貢鹽)로 2쌍, 사염부(私鹽釜)로 2쌍을 사용하였다.

영일현의 염소로는 물산리(勿山里)·팔곡리(八谷里)·여천리(余川里) 3개소에 자염분 56척을 두어 공염분으로 39척, 사염분으로 17척을 사용하였다.

장기현의 염소로는 양포 판공리(良浦 板孔里)·포리포(包里浦)·적석포(赤石浦)·죽하리(竹下里)·임물리(臨勿里)·염창리(鹽倉里) 6곳에 염분 130척을 두어 공염분으로 76척, 사염분으로 50척, 포리포 군수염분(軍須鹽盆)으로 4척을 사용하였다.

청하현의 염소로는 오도리 허인노포(許勿老浦)·개포(介浦)·둔음곡리 고송라포(菴音谷里 古松羅浦) 3개소에 자염분 40척을 두어 공염분으로 19척, 사염분으로 19척, 통양포 군수염분으로 2척(隻)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흥해군의 염소로 영덕군과 경계[越境地]에 1곳을 두고 군민이 내왕하며 소금을 구워왔다고 한다.

영일만권 동해안의 여러 염분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염(貢鹽)·사염(私鹽)·군수염(軍需鹽)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염을 신역으로 하는 염간에 의하여 제조되는 관염은 지방관부의 소유로서 민간에게 발매하여 관부의 비용에 충당하는 한편 사염의 경우는 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고 염세를 공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염상(鹽商)이 등장하여 인세(引稅, 허가세)를 내고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 호전 어염조에서는 제도(諸道)의 염분을 등록케 하는 한편, 염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읍들은 염창을 두어 세염(稅鹽)을 실어와 이를 곡포(穀布)로 바꾸어 군자에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영일만권의 군수염은 장기현의 4척분(隻盆)과 청하현의 2척분(隻盆)으로 각기 장기의 포이포진과 흥해의 통양포진에 충당토록 하였다. 이 때 흥해군의 염분은 군(郡) 수요에도 부족하여 청하에 통양포진을 위한 군수염분을 설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제염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통상 염간(鹽干)·염한(鹽漢)·염정(鹽丁)이라고 하여 이들이 제염을 전담하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선군(船軍)이 조운이나 영전(營田) 또는 파선(破船)의 개조와 같은 작업 외에 자염하는 일에 전용되기도 하였으니 제염역에 있어서 자염하는 일은 염한호(鹽漢戶)가 주관하고 선군(船軍)이나 공노비(公奴婢)는 그 역을 조력하는데 불과하였다.

본래 자염에 종사하는 염간은 비록 양인의 신분이었기는 하나 염역(鹽役)이 천역이었기 때문에 신량역천(身良役賤)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며, 또한 염역이 워낙 고역이었던 까닭에 염간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제염법은 대개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염전에 농후한 함수(鹹水)를 채취하는 채합작업과 이것을 전오(煎熬)하여 제염하는 전오작업의 2단계 작업과정을 거치는 염전식 제염법이고, 다른 하나는 해수를 직접 염부(鹽釜)에 넣어서 전오하여 제염하는 해수직자법(海水直煮法)법의 두 가지이다.

전라도 남부, 경상도 동해안, 남해안 및 함경도 동해안 염전의 대부분이 전자에 속하고 서해안의 해조간만(海潮干滿)의 차가 심한 평안도·경기도·충청도·전라도·북부지방 대부분의 염전이 후자에 속한다.

## 4. 상공업

### 1) 수공업

조선은 개국 이래 민생 안정과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정책으로 농업을 장려한 반면에, 사경제활동의 억제와 관영(官營) 강화를 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상공업을 진흥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대개 수공업은 영세 농업경영과 결합된 가내수공업으로서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단위로 생산하는 일이 많았고, 그 중의 일부는 공물(貢物)로 공납하거나 물물교환으로 거래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의 수공업 이외에 전업적인 수공업자를 장인이라 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수공업은 농민들이 부업으로 하는 가내수공업과 무기·문방구·생활용구 등 국가의 수요에 충당하는 관영수공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가내수공업은 면직업을 중심으로 견직·마직·저직업(苧織業)이 성하였다. 이들 제품의 일부는 공물로 상납되고, 나머지는 물물교환에 사용되었다. 관영수공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수공업자인 공장(工匠)은 원칙적으로 공장안(工匠案)에 등록되어 중앙과 지방관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에 관영수공업은 크게 진흥되어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울의 경공장(京工匠)은 관장 280명이 정원으로 공조(工曹)를 비롯한 각 관청에 소속되어 129종의 물화를 제조했으며,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에는 3,600명의 관장이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27종의 물화가 제조되었다. 그러나 관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속적인 공장인 것은 아니었고, 1년 중 일정한 기간에 관역에 동원되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고 평상시에는 개별적인 사영수공업에 종사하여 장세(匠稅)를 바치곤 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미약하나마 전문적인 사영수공업이 성장하여 양반들의 사치품과 일반 생활필수품이 제조 판매되기도 하고, 농촌에서는 야장(冶匠)에 의해서 농기구들이 제조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특수한 수공업이 있어, 사원에 의하여 제지(製紙)라든가 백정에 의하여 제혁(製革)·유기제품 등이 생산되었다.

조선 초기의 관영수공업은 공장에게 부과된 과중한 책임량과 의무적인 생산체제로 인해 자유스러운 발달을 보지 못한 채 중기에 이르러 몰락하고 대신 사영수공업이 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장들도 자유수공업자로 전신하게 되었다. 당시 《경국대전》에 명시된 영일만권의 외공장 종류와 그 정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공장 종류와 정원

군현명	冶匠	弓人	矢人	皮匠	木匠	席匠	紙匠	漆匠	磨造匠	油具匠	장인합계
흥 해	1	1	1	1	1	1	4	1	·	1	12
영 일	1	1	1	1	1	1	4	1	·	1	12
장 기	1	1	1	1	1	1	3	1	1	1	12
청 하	1	·	1	1	1	1	3	1	·	1	10

기계·신광·죽장에도 외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모두 경주부 임내인 관계로 기록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주부의 지장이 10명으로 다른 고장보다 훨씬 많은 것은 한지 생산지로 꼽혀왔던 죽장의 지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 중에 철은 예로부터 경북지방에 많이 생산되어 산철읍의 산지에는 야장을 설치하고 장적(場籍)은 공조와 본도 및 본읍에 비치하며 농한기에 채취 납부토록 하였다.

이들 야장으로부터는 공철제(貢鐵制)에 의한 정액(定額) 납세가 강요되었으며, 철장(鐵場, 산지에 설치한 제련장)에서 매년 국가에 공납되는 공철량은 철장에 따라 각기 일정하지 않았으며 품종 또한 생철(生鐵)·정철(正鐵) 및 연정철(鍊正鐵) 등 철장에 따라 달랐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재한 영일만권의 세공정철(稅貢正鐵, 沙鐵·石鐵 등을 제련하여 만든) 근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흥해군 : 409斤, 영일현 : 409근, 장기현 : 360근, 청하현 : 339근

앞은 근수는 경상도 각 군현에 배당된 근수가 360근, 339근 등 양이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산철여부에 관계없이 읍세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 같다.

그리고 문종과 세조 때에는 군기와 화기 제조도 각 지방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1450년(문종 즉위년) 9월 경상도에는 자인(경주 임내)·안동·성주·진주에 4개의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하여 각기 부근 군현을 소속시켜 소속 각 읍으로 하여금 화약원료인 염초토(焰硝土)와 소목(燒木)을 도회소에 수납케 하고 여기에서 화약과 각종 무기를 제조하였다.

영일만권의 각읍은 자인도회소(茲仁都會所)에 소속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7월에는 전국의 군현을 5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일정한 군기를 제조 공납케 하였는데, 그 분담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각 군현에 분담된 군기 공납

읍명	鄉角弓	麻箭	筒箭	長槍	中槍	環刀	弓弦	鐵甲	大錚	中錚	小錚	鼓	大角	小角
흥해	46張	23部	23部	18柄	26柄	46把	92箇	3領	1	2	2	2	2	2
영일	46	23	23	18	26	46	92	3	1	2	2	2	2	2
장기	36	18	18	15	21	36	72	2	1	2	2	2	2	2
청하	17	9	8	7	10	17	34	·	·	·	·	·	·	·

이러한 군기는 1년에 한 번 만들되 기모(旗髦)는 2년에 한 번 만들고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두며 갑주(甲冑)·쟁(錚)·고(鼓)·각(角)은 거진에서만 제조하여 납부케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영일현 토산조에 현동쪽 우전산(隅田山)에서 나는 숫돌(礪石, 여석)이 상품(上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조선전기의 도자기는 특히 지방으로 확산 발전하여 세종대에 전국적으로 자기소가 136개소, 도기소가 185개소가 되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영일만권의 도자기소는 흥해군 북쪽 승곡리(勝谷里)에 도기소 1곳, 북쪽 장생리(長生里)에 자기소 1곳, 영일현 동쪽 사현(沙峴)에 도기소 1곳, 기계현 대지동리(代之洞里)에 도기소 1곳으로 품질은 상·중·하품 중 모두 하품(下品)이었다. 또한 《경상도지리지》에 흥해군 토산공물로 사기(沙器)가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각 장기현 북쪽 12리의 천을이산(淺乙伊山)과 북쪽 19리의 뇌성산(磊城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물로 취급될 정도로 귀한 회록색(灰綠色)의 도료(塗料)인 뇌록(磊綠)이 생산 된다는 기록도 주목이 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뇌록이 나는 곳은 장기현 외에 황해도 풍천군 용산리(龍山里) 두 곳 뿐이다.

그리고 1997년에 이루어진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의하여 오천읍 향사리의 고락골과 같은 마을의 수정사계곡에서 1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가마터가 발견되고, 오천읍 문덕리와 대송면 절골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전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마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임진왜란 직전까지 15세기에 기록된 도자기 가마터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2) 상업

지금까지 살펴본 백성들의 생활실태와 유교의 정치철학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체제 속에서 유통경제와 상업의 발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수공업의 침체와 영세한 농어민의 생산 하에서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하기란 극히 좁은 범위 안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성종조 이후 기근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싹튼 장시(場市, 場門·場)를 유일한 생산물의 교역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를 금지하였지만은 중종·명종조에 들어서서부터는 전라·충청·경상 등 삼남 각 지방에 점차로 파급되었다. 이것은 상업이나 화폐경제의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민이 기근·천재 등을 당하여 혹은 가혹한 민역(民役)을 피하기 위하여 장시로 집중되는 것이었다. 그 발생이 국정이 해이하기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이 같은 억상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상부고(大商富賈)들이 각지에서 상행위를 자행하여 재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지방 토호들은 어염(魚鹽)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영일만권의 장시와 이를 통한 상업활동에 대한 고찰은 자료가 나타나는 조선후기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 5. 수취제도

조선시대에서도 고려시대의 수취제도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인구 중 대부분의 상민은 조세·역역·공물의 부담을 져야했는데, 그 지방의 환경과 생산물의 특성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하였다.

세종 때에는 모든 토지에서 일정률의 조세를 수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여, 토지의 비옥도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조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분(田分) 6등법과 연분(年分) 9등법이었다. 이로써 결부제(結負制)와 전세제(田稅制)가 확립되었으며, 조세는 수전(水田, 논)에는 미(米, 쌀), 한전(旱田, 밭)에는 태(太, 콩)로서 추수 후에 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공물(貢物)은 민호를 대상으로 하여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이 있었다.

“무릇 군읍의 전부(田賦)는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같으며, 종외관사(中外官司)에서 수요 되는 물품은 모두 군현의 토공(土貢)에서 제공된다”는 조선왕조의 수취제도가 말해주듯이 각 읍의 공부는 그 지방의 산물을 거의 망라하고 있었다.

전세는 본래 미곡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때로는 곡물이 아닌 포(布)·목(木)·유(油)·밀(密) 등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전세포화(田稅布貨)’ 또는 ‘전결공납(田結貢納)’으로 불렀다. 특히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운수송의 곤란으로 곡물 대신에 지역에 따라 면주·포목으로 대납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賦)는 전세, 즉 전결(田結)공물, 공(貢)은 토산공물, 즉 별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각 군현의 공부, 토산공물 및 토산물을 열거한다.

###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 ● 흥해군

- 공부 : 면주(綿紬, 명주), 목면, 저포(紵布, 모시), 상면자(常綿子), 정오승포(正五升布, 품질 좋은 베), 상중미(常中米), 조미(造米), 전미(田米, 좁쌀), 진맥(眞麥), 태(太), 녹두, 진임자(眞荏子), 청밀(淸蜜), 진유(眞油, 참기름), 법유(法油, 들기름)
- 토산공물 : 곱(藪, 미역), 우모(牛毛), 장피(獐皮, 노루가죽), 이피(狸皮, 삿가죽), 호피(狐皮, 여우가죽), 사어(沙魚, 상어), 전포(全鮑, 전복), 건합(乾蛤, 마른 조개), 목기, 사기, 약재[생지황(生地黃), 백편두(白篇豆), 방풍(防風), 질이자(疾痢子)]
- 토의경종(土宜耕種, 흙에 맞는 경작 품종), 도(稻, 벼), 大·小麥, 마(麻)

## ● 영일현

- 공부 : 목면, 저포, 정오승포(正布), 상면자, 갱미(更米, 멍쌀), 간중미(間中米), 조미, 전미, 진맥, 청밀, 촉밀(燭蜜, 黃蜜, 벌통에서 그대로 떠낸 꿀)
- 토산공물 : 진유, 법유, 광, 전칠(全漆), 장피, 수달피(水獺皮), 건장(乾獐, 마른 노루고기), 건록(乾鹿, 마른 사슴고기), 이피, 지초(芝草), 전포, 어피(魚皮), 죽순(竹筍), 사어(沙魚), 건합, 광어, 청어, 모어(牟魚), 해의(海衣, 해태·해조·김), 송이, 여석(礪石, 슛돌), 소(篠, 가는 대), 탕(蕩, 왕대), 진복(鎭卜), 녹포(鹿脯), 녹피(鹿皮)
- 약재 : 방풍, 맥문동(麥門冬), 백편두, 저실(楮實, 닥나무 열매, 파고지(破古紙), 생지황, 질이자, 만형자(蔓荊子)
- 토의경종 : 도, 대·소맥, 속(粟), 서(黍), 직(稷), 숙(菽)

## ● 장기현

- 공부 : 목면, 정오승포, 상면자, 조미, 전미, 진맥, 태, 청밀, 진유
- 토산공물 : 진유, 법유, 청밀, 촉밀, 전칠, 장피, 녹피, 호피, 뇌록(磊綠, 灰綠色의 塗料), 전포, 사어(沙魚), 방어, 건합, 해의, 광, 우모, 송이,
- 약재 : 방풍, 백편두, 상표소(桑螵蛸), 질이자, 만형자
- 토의경종 : 도, 속, 서, 직, 숙, 대·소맥

## ● 청하현

- 공부 : 목면, 상면자, 정오승포, 간중미, 조미, 진맥, 태, 전미, 진입자(眞荏子)
- 토산공물 : 청밀, 촉밀, 진유, 법유, 광, 대구어, 전포, 건합, 장피, 전칠, 지지(紙地), 호피, 광어, 사어(沙魚),
- 약재 : 생지황, 백편두, 저실, 방풍, 백복령(百茯苓)
- 토의경종 : 도, 속, 서, 직, 대·소맥, 마

## ● 기계현

- 공부 : 면유, 목면, 정오승포, 상면자, 백미, 조미, 전미, 태, 진맥
- 토산공물 : 청밀, 촉밀, 진유, 법유, 진자(榛子), 지초
- 토의경종 : 도, 서, 직, 속

## ● 신광현

- 공부 : 목면, 상면자, 정오승포, 백미, 상중미, 조미, 전미, 진맥
- 토산공물 : 청밀, 촉밀, 당추자(唐楸子), 백자(柏子, 잣), 진유, 법유, 전칠, 지지
- 토의경종 : 도, 서, 직, 속

## 《경상도속찬지리지》

- 흥해군 •세공 : 正鐵 409근, 種養藥材 : 생지황, 백편두, 방풍, 질이자
- 영일현 •세공 : 정철 409근
- 장기현 •세공 : 정철 360근, 種養藥材 : 마황(麻黃)
- 청하현 세공 : 정철 339근, 種養藥材 : 백복령, 앵속각(鶯粟殼), 모향(茅香), 차전자(車前子), 백자인(柏子仁), 도인(桃仁), 창출(蒼朮), 의이인(薏苡仁), 박하(薄荷)

### 《신증동국여지승람》

- **흥해군**
  - 토산물 : 북(鰻, 전복), 대구어, 청어, 흥합, 광어, 방어, 사어(鯊魚, 상어), 《경상도 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沙魚로 표기됨), 고도어(古刀魚, 고등어), 해의, 해삼, 곱, 세모(細毛), 우모, 죽전(竹箭, 대살), 송어, 흥어, 송심(松茸, 송이버섯), 은구어(銀口魚, 은어)
- **영일현**
  - 토산물 : 밀봉(蜜蜂), 죽전(竹箭), 송심, 해달(海獺, 물개), 방어, 연어, 북, 방풍, 광어, 대구어, 흥합, 은구어, 청어, 해의, 곱, 여석(礪石, 슛돌), 황어, 전어, 사어(鯊魚, 상어), 송어, 흥어, 고도어
- **장기현**
  - 토산물 : 뇌록(磊綠), 광어, 해삼, 사어(鯊魚), 대구어, 방어, 청어, 송어, 북, 흥합, 곱, 해의, 해달, 송심, 마어(麻魚, 삼치), 정분(丁粉, 眞粉, 백아, 백토라고 하며 백색의 안료, 東乙背串에서 난다) 방풍
- **청하현**
  - 토산물 : 방어, 북, 대구어, 청어, 흥합, 백조어(白條魚), 해의, 곱, 광어, 봉밀, 석심(石蓴, 석이버섯)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는 《경상도지리지》의 공부, 토산물 및 약재가 통합 감축되어 기재된 것이다. 이들 공물을 내용상으로 보면 농산물과 가내수공업제품, 그리고 해산물인 어패류, 해초류, 담수어와 광산물 등 천연산물이 주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그 당시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필품이었다. 어로 기술의 수준이 낮았던 당시에 영일만 연안 어장에서 한류성 어종인 대구어가 다량으로 잡히고 이것이 토산 공물로 바쳐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현재 영일만 주변 해역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의 상승과 해양 환경의 변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구어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어종도 망상어, 쥐치, 멸치, 볼락, 솜뱅이, 노래미, 돌돔, 방어, 넙치, 즐복 등이 주로 잡히고 있다.

## 6. 조운

국가의 운수로서 가장 유력한 것의 하나가 조운(漕運)이다. 조운이란 조세로 징수하는 미곡·포백(布帛)등을 해상을 통하여 선박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전(漕轉)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조운의 보조 수단으로 강(江)을 이용하는 경우를 참운(站運)이라고 하여 조운과 구별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조창(漕倉)과 수참(水站)을 해안 또는 하천 요지에 세우고 인근의 주현으로부터 육운·수운으로 세곡을 모아 이것을 뱃길을 통해 한양으로 운송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시설하는 조·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멀고 구석진 지방은 민선을 임차하여 강과 바다를 통하여 납부하였다.

이 제도는 고려 초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고려 말기 왜구의 창궐로 말미암아 조운은 전폐되다시피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민왕대에 한 때 원(院)·관(館)을 설치하여 육로 운송을 하게 됨으로써 조창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육운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대규모 운송이 어려워 배로 운송하는 조운만큼 이점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공양왕 때 다시 내륙의 수운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조선조에서는 조운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한양으로 천도하여 점차 발전을 보게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조운의 제도가 다시 정비되었으나 해안의 조창은 예성강구로부터 섬진강구에 이르는 서해안에 수 개를 두는데 그쳤고, 해안에는 후기 영조대에 이르러 설치될 보게 된다. 1731년에 우리고장의 영일현에 포항창진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상도는 조령·죽령에 가까운 지방만이 영(嶺)을 넘어 충주 가흥창으로 연결되고 그 밖의 지역은 민선으로 남·서해안을 거쳐 수납하였다.

조운선은 본래 병선과 구별하여 건조 되었으나 세종대부터 병선을 조운선으로 겸용 하기도 하였으며, 세조7년(1461) 무렵부터는 병선 건조 시에 선체가 경쾌하면서도 적재량이 많도록 설계를 바꾸었다. 조운선의 적재량이 1천석 이상, 7백석 이상, 6백석 이상 등의 종류가 있었다.

우리 고장의 현물조세는 각 읍창에 보관된 후 육지로 운송하여 문경의 초점(草站, 조령지역)을 넘어 충주 가흥창(可興倉, 경원 또는 덕흥창이라고도 함)에 임시로 적치 해 두었다가 남한강 상류에서 배에 실어 서울 경창(京倉)에 운반되는 경로를 취하고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각읍공세조〉를 보면, 흥해·영일·청하·기계·신광에서 충주 가흥창까지 육지로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일은 8일이며, 장기에서는 9일 정도(程度)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조운시 제도(諸道)의 조전선(漕轉船)은 수군절도사·첨절제사·만호가 각기 경내에서 병선을 거느리고 호송하며, 상선은 그 통과하는 제진(諸鎭)의 진장이 점검하여(路引을 살피고 군기를 점검하고 단독 항행을 금지) 주진(主鎭)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세 수납은 1477년(성종 8)에 이르러 경상도 지방에서 왜구를 방비하기 위한 비축 군자(軍資)가 부족하니 충족될 때까지 경주(慶州)·성주(星州)·청송(靑松)·대구(大丘) 등과 경남지방을 포함하여 총 48고을은 군자 전세를 각기 읍창에 납입할 것

을 건의하자 성종이 이에 따랐다. 당시 이 고장도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었고, 대체로 입란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 영일만권에 설치된 조창과 각 읍에 설치된 읍창은 흥해·영일·장기·칭하의 읍창(邑倉)을 비롯하여 형산창(兄山倉)·신광창·기계창·죽장창 등이며, 영일현과 장기현에는 각각 군창(軍倉)이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형산창은 경주부와 영일현의 경계지 부근 형산강 하류 형산포에 설치된 것으로, 설치 이전에 창고가 없어 현물 전세를 상납할 때는 충주 가흥창으로 수송하거나 아니면 양산 감동창(甘同倉)으로 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상하의 조운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각 창 모두에 감관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고, 각 부·군·현의 좌수가 겸하도록 하였으며, 형산창에는 따로 관리인을 두었다.

#### 참고문헌

《고려사》,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세종실록》, 《문종실록》, 《경국대전》,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승제, <李朝鹽業史 研究>《근대한국산업사연구》, 대동문화사, 1959.

朴九秉, 《韓國漁業史》, 정음문고, 1975.

신지현, <鹽業>《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崔完基, <朝鮮前期 漕運 試考> 《白山學報》제20호.

손종철 외, <동해 포항연안에서 채집된 魚種의 종조성 및 양적변동>,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



## 제5절 근세사회

### 1. 성씨( )

경북지방은 조선 전기까지도 토성(土姓) 세력이 전국에서 가장 뿌리 깊게 존속되었으며, 이들이 각 읍마다 향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토성이족(土姓吏族)은 고려 후기부터 중앙 진출이 활발해지자 점차 토족과 이족으로 분화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왕조교체를 계기로 더욱 촉진되어 같은 토성출신이면서 한쪽은 상경 벼슬하여 재경 관인이 되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이족과 재지사족(在地土族)으로 구분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양반과 중인이라는 계층분화로 까지 발전되어 나갔다. 그 결과 기존 토성의 유망에서 망성(亡姓)이 생기고 북경(北境)개척에 따른 사민입거(徙民入居)에서 입진성(入鎭姓)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인 이동에서 경래성(京來姓)·내성(來姓)·입성(入姓) 등이 발생했던 것이며, 특히 여말선초 열읍 사이의 향리 조정책에 의하여 속성(續姓)이 대량 발생했던 것이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성종(姓種)은 귀화성을 제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 초라는 시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거족(鉅族)이나 신흥 사족 및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군현 토성에서 나왔다. 각 지리지에 전해지는 영일만권의 성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상도지리지》

- 흥 해 군 : 土姓 4 (裴·崔·李·張)
- 영 일 현 : 土姓 3 (鄭·成·朱), 慶州來姓 2 (金·崔)
- 장 기 현 : 土姓 5 (鄭·吳·安·任·金)
- 청 하 현 : 土姓 3 (金·明·李)
- 기 계 현 : 土姓 4 (俞·楊·益·尹)
- 신 광 현 : 土姓 4 (徐·金·尹·申)
- 죽 장 : 土姓 1 (葛)
- 성 법 이 : 土姓 1 (金)

#### 《세종실록지리지》

- 흥 해 군 : 土姓 4 (裴·崔·李·張)  
속성 3 (鄭 : 長鬢來, 李 : 安德來, 朱 : 熊神來, 모두 鄉吏가 되었다.)
- 영 일 현 : 土姓 3 (鄭·成·朱), 來姓 2 (金·崔)

- 장 기 현 : 土姓 5 (鄭·吳·安·任·申), 來姓 4 (金·李·裴·崔)
- 청 하 현 : 土姓 3 (金·明·李)  
 續姓 2 (朱 : 熊神來, 鄭 : 본은 알 수 없으나 모두 鄉吏가 되었다.)
- 남계부곡 : 土姓 1 (吉)
- 기 계 현 : 姓 4 (俞·楊·益·尹)  
 續姓 1 (金 : 김해에서 왔고 鄉吏가 되었다.)
- 신 광 현 : 姓 4 (徐·陳·尹·申)
- 죽 장 면 : 續姓 4 (葛은 花園에서 왔다. 金·李는 경주부에서 왔다.  
 宋은 합천에서 와서 모두 長役이 되었다.)
- 성 법 이 : 續姓 2 (金·崔는 경주부에서 와서 모두 長役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흥 해 군 : 本郡 : 裴·崔·李·張, 鄭(長鬢), 李(安德), 朱(熊神)
- 영 일 현 : 本縣 : 鄭·成·周, 朱·金·崔 모두 來姓
- 장 기 현 : 本縣 : 鄭·吳·安·任·申, 李·崔·裴·金 모두 來姓
- 청 하 현 : 本縣 : 李·金·明, 朱(熊神), 鄭(續姓이다.), 吉(南界)
- 기 계 현 : 俞·楊·益(孟이라 한데도 있다.), 尹·金(김해)
- 신 광 현 : 徐·陳·尹·申
- 죽 장 : 葛(續姓이다.), 李·金·宋 (모두 來姓)
- 성 법 이 : 金·崔(모두 續姓)

《세종실록지리지》에 소재한 각읍(各邑) 성씨는 해당읍 향리성과 비교한 결과 고려조 이래 그 읍사(邑司, 읍의 관리)를 구성하였던 향리의 성씨를 대상으로 기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초기 이래 15세기까지 중앙의 역대 지배세력만이 군현 토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각 읍사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하면서 징세(徵稅)·조역(調役)을 직접 담당했던 향리 집단도 각읍 토성이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군현 토성의 구성요소는 읍치(內)의 지배성 그룹인 ‘人吏姓’과 촌락지배성인 ‘百姓姓’이다. 따라서 읍격(邑格)의 높고 낮음은 그 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세력의 대소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고려시대 영일권의 시기별, 고장별 군현 토성(本관)의 진출 상황을 보면 영일은 고려 전기에 귀족 또는 고급 관인을 진출시켰고, 흥해·장기·기계는 후기 또는 말기에 비로소 고급 관인을 진출시켰으며, 청하·신광은 여말까지 고급 관인을 내지 못하였다.

조선전기 대표적인 관료 문인의 한사람인 성현(成俔, 1439~1504)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거족 75성관(姓貫)을 열거하였는데, 이 가운데 영일만권에서는 영일 정(鄭)씨가 포함되어 있다.

여말선초에는 중소 군현 토성의 진출이 특히 현저하였는데, 이 고장에서는 흥해의 배(裴)씨와 최(崔)씨, 영일 정(鄭)씨, 장기 오(吳)씨, 기계 유(兪)씨가 꼽히고 있다.

흥해 4개 토성 가운데 배씨와 최씨가 여말에 사족으로 성장하였다. 흥해 배씨를 일약 사족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은 배전(裴佺)으로서 그는 충숙왕 때 폐행(嬖幸)으로 출세하여 흥해군(興海君)에 봉해졌고, 상도(尙度) 등 네 아들이 모두 과거를 거쳐 신진 사대부로 발전하였으며, 일가에서 15세기 동안 문과 급제자가 10명이나 나왔다. 이 가문은 안동 일대에 분포되어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족세가 번성하였고, 영남사림과의 범주에 드는 인사가 많았다. 흥해 배씨는 여말에 상경 벼슬한 가문 가운데 일부는 재경관료가 되고 일부는 낙향하거나 흥해를 떠나 안동·예안·영주 등지에 분포되었다.

흥해 최씨에는 최연(崔淵, 태종조 문과, 司成)·최계동(崔繼潼, 문종조 郡守)등 일문이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최환(崔渙, 중종조 牧使)은 청도에 거주하였다. 특히 최연은 사성과 직제학 등 교육과 문한의 직을 역임하였고 김준손(金駿孫, 김해 人, 金駟孫의 형)의 장인으로 영남사림과 연결되었다. 이 가문도 상경 종사(從士) 하면서부터 흥해를 떠나 서울과 청도 등지에 거주하게 되었다.

영일·장기·청하 3현의 토성 가운데 영일 정씨와 장기 오씨 및 장기 정씨만이 사족으로 발전하였다.

영일 정씨는 고려중기에 향공문과(鄉貢文科)에 급제해 출사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낸 정승명(鄭襲明)을 시조로 하고 그 후손의 정몽주(鄭夢周)와 정사도(鄭思道) 가문이 여말에 흥기하면서부터 영일 정씨는 명문으로 발전하였다. ‘경주호장안(慶州戶長案)’에 의하면 한말까지 영일호장에 정씨가 나음을 보아 재지이족(在地吏族)은 영일현의 호장을 세습하면서 후세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장기 오씨로는 고려후기에 오방우(吳邦祐)가 현리로 등제하여 5도안렴사(五道按廉使)를 역임하였고, 중종조에 문과로 김제군수를 지낸 정승주(鄭承周)는 장기 정씨였다.

기계·신광의 토성 가운데 사족으로 성장한 성관인 기계 兪씨·윤(尹)씨는 모두 고려후기 현리에서 향공(鄉貢)으로 진출하여 조선시대 명문으로 발전한 가문이다. 나머지 토성에 관해서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성은 그 성씨의 출자지(出自地) 또는 본관으로부터 이동했다는 뜻에서 본다면 후술할 속성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단 형성시기와 이주의 동기 및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내성 또 내접성(內接姓)은 그 자의대로 타 지방에서 입래 또는 내접한 성씨로서 여초 이래의 ‘고적(古籍)’에도 토성과 함께 기재되었던 성의 종류이다.

영일현의 내성 김(金)·최(崔)·정(鄭)·성(成)·주(周)·주(朱), 장기현의 내성 김(金)·이(李)·배(裴)·최(崔)·정(鄭)·오(吳)·안(安)·임(任)·신(申), 죽장의 내성 이(李)·김(金)·송(宋)을 본관별로 보면 대체로 토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비(非) 토성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성도 경래성(京來姓)이나 투화성(投化姓)을 제외하

면 대부분 군현 토성에서 출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속성(續姓)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각 읍 성씨조의 맨 끝에 놓였고, 내성 다음에 기재되었다.

속성은 고래 이래의 고적에는 없고 그 대신 《앞의 책》 편찬당시 각 도의 성씨 관계 보고문서인 ‘관(關)’에 처음 기재된 것이니, 토성·내성과는 다르게 망속성(亡屬姓)이 있을 리 없다. 《경상도지리지》에 기재되지 않았던 속성이 그보다 7년 뒤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처음 나오는 것은 바로 앞의 책 편찬 당시에 비로소 추가로 수록(續錄)한 데서 속성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 같다. 그것이 기재된 시기는 앞의 책 편찬 당시인 세종 14년경이라 하더라도 속성을 담은 ‘文籍’은 이미 고려후기부터 있어 온 것이라 생각된다.

내성이 여초부터 형성된 것이라면 속성은 고려후기 내지 여말선초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속성은 촌을 제외하고는 주읍과 속현 및 향(鄉)·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역에도 있었다. 그런데 속성은 고려후기 이래 북로남왜(北虜南倭)와 격심한 사회변동 및 거기에 따른 토성 이족의 유망(流亡)에서 군현과 각종 임내(任內)의 향리 또는 장리(長吏) 자원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 내지 열읍 간에 조정을 한 결과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흥해군의 속성은 장기에서 온 정(鄭), 안덕에서 온 이(李), 웅신에서 온 주(朱)이며, 청하현의 속성은 웅신에서 온 주(朱), 본을 모르는 정(鄭)이며, 기계현의 속성은 김해에서 온 김(金)씨로서 모두 향리가 되었으며, 죽장의 속성은 화원에서 온 갈(葛), 경주에서 온 김(金)·이(李), 합천에서 온 송(宋)이며, 성법이의 속성은 경주에서 온 김(金)·최(崔)씨로 역시 모두 향리가 되었다.

흥해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주부의 임내로서 여말선초에는 주읍(主邑) 토성의 임내 이주가 활발하였고, 본래 토성이 이동하여 속성이 된 것은 대개 향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안강·기계·신광·자인 등 경주부의 속현과 구사·북안곡 부곡 등 경주부 임내에는 모두 독자적인 토성이 있는 반면에 죽장과 성법이 부곡에는 토성이 없고 대신 속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규명해 볼 문제이다. 위에서 향·부곡에도 군현과 같이 토성 이민(吏民)이 있다는 사실은 향·부곡민이 천민이라는 종래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증이 되고 있다.

## 2. 호 구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호적의 정비에 많은 힘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단지 국내의 전 인구수를 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군역 등 각종 역역(力役)의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인구의 조사보다도 ‘정남(丁男)’의 조사에 항상 중점을 두었다.

조선초기 ‘호구’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보고가 있었던 태종 4년과 6년 및 《세종실록지리지》 소재의 호구통계는 다 그러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태종 4년과 6년의 전국 호구(丁) 통계와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소재 호구통계는 후기의 호구, 인구수(人口數)와는 성질이 다르다. 15세기에 나타나는 ‘호(戶)’ 또는 ‘구(口)’는 호구 통계의 성질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하였다. 그것은 실제 가구수와 인구수를 호구수로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호는 군역 등 일정한 역역 또는 공부(貢賦)의 부과단위로서 인위적인 편성호(編成戶)를 말할 때가 있다. 이럴 때의 호(戶)는 복호(復戶, 호에서 제외)의 대상 계층(사족, 종친 또는 외척)과 사천(私賤)을 제외한 세(稅)·역(役)·공물(貢物)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의무부담 대상으로서 호적에 등재된 「편호(編戶)」란 뜻이며, 호수(戶首, 正軍)·봉족(奉足)이란 문제와 결부될 때는 助丁(保)에 대한 정정(正丁)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적인 편호인 경우는 역의 경중과 신분의 고하 또는 지역에 따라 ‘호’의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호는 “并三戶爲一戶”와 “以三家爲一戶”에서와 같이 이중의 의미를 가져 ‘병삼호’의 호는 자연호로 가구와 같은 개념이며, ‘위일호’의 호는 역이나 공물을 부과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만든 법제호이다. 법제호인 경우는 위의 ‘3호’·‘3가’ 외에 ‘三丁爲一戶’로 편성하는 것이 고려시대 이래 조선에 이르기까지 통례였으며 신분의 고하, 역의 경중 또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호의 등급도 인정수(人丁數)·전결수(田結數) 또는 집의 간가수(間架數)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였다.

편호의 지역적 차이는 토질의 비척(肥瘠)과 농경지의 광협(廣狹)에 따른 인구분포의 소밀(疏密)에도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와 같이 흉황(凶荒)·전란(戰亂) 등으로 인한 유·이민의 대량 발생은 지역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인구분포에 현저한 격차를 초래하였다.

고려시대의 ‘호’는 조세부과의 단위이기보다 역역(力役) 징발의 단위로 “編戶以人丁多寡分爲九等定其賦役” (《고려사》권84, 형법 戶婚條) 하였던 것이나 이러한 현상은 선초에 와서 변모하여 호의 등급원리가 인정(人丁)의 다과로부터 전지(田地)의 다과로 전환하게 되었다.

태조 때부터 인정 외에 전결(田結)도 고려되다가 마침내 세종 17년에 가서 전결의 수의 다과에 따라 호의 등급을 대호(50결 이상)·중호(30결 이상)·소호(10결 이상)·

잔호(殘戶, 6결 이상)·잔잔호(殘殘戶, 5결 이하) 와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백성에 대한 수취체제의 기준이 인정에서 전지로 전환하는 시대적 소산물이었으며, 선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정과 전결이 동시에 고려되는 소위 절충법이 여러 번 곡절을 겪으면서 시행되다가 점차 계전법(計田法)으로 고정되어 간 것 같다.

조선초기 군현별 호구수도 처음 기재된 것은 《경상도지리지》이다. 이 지리지에는 도총조(都總條)에 시거(時居) 호수와 인정수, 각 군액(軍額) 및 상경종사 인원수가 기재된 다음 도내 각 군현별로 호수와 남·녀별 인구수가 기재되었는데, 29년 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호구조에는 《경상도지리지》의 호수와 남자 수만을 인구수로 해서 그대로 전제하였다. 《경상도지리지》에 의거한 이 고장 각 읍의 호와 인구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호구 통계표

군 현 명	호	남자	여자	합계	호당인구
흥 해 군	423호	1,885명	2,151명	4,036명	9.5명
영 일 현	417	1,742	1,886	3,628	8.7
장 기 현	203	813	923	1,736	8.6
청 하 현	235	724	485	1,209	5.1
기 계 현	177	491	537	1,028	5.8
신 광 현	95	448	469	917	9.7

위 표의 호수는 자연호가 아닌 군역(軍役) 또는 공부(貢賦)의 부과단위로 책정된 편성호이다. 이들 호구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며 국가에 대한 부역(전세·공납·역역)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지배 계층의 신분으로 농·공·상·어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살아간 상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생산 활동을 담당하여 실제 고장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체적 신분층이었다. 상민층에는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영일만권은 입해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달랐으며, 특히 상민층 즉 농민층은 자산(資産)의 빈부와 사회세력의 우열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까지 있었다.

영일만권에서 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신광현의 9.7명이며 가장 적은 곳이 청하현의 5.1명이다. 이러한 호당 인구수는 조선전기의 전국적인 호당 인구수(세조 7년 : 5.5명, 중종 14년 4.9명) 4~5명에 비하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호는 몇 개의 자연호를 한 단위로 해서 편성한 것인 만큼 가령 ‘3戶爲1戶’인 경우에는 자

연호의 호당 인구수가 평균 5명이라고 하면 15명이 되는 셈인데, 전국적으로 호당 인구수가 4~5명에 불과한 것은 유아 사망률이 높는데다가 유아의 호적등재가 부진하고 누정(漏丁)이 많은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7~8세 이하 유아들이 호적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 나타난 호구통계는 실제 주민의 호구수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나 이것도 실제 가구수와 인구수를 구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당시 영일만권에는 흥해군과 영일현의 읍세가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려사》,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세종실록》, 《문종실록》, 《경국대전》, 《신증동국여지승람》
- 李泰鎭, <15세기 후반의 巨族과 名族意識> 《한국사론》3, 1976.
-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일조각, 1984.
- 李樹健, <이조초기호구연구> 《영남대학교논문집》제5집, 일조각, 1984.
- 李樹健, 《한국 중세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4.

## 제6절 조선전기 영일만권의 교육기관

### 1. 조선전기의 교육제도

조선시대 관학으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다. 성균관은 태조 7년(1398년)에 유학이념에 입각한 학술의 연마와 국가 관리 양산을 주목적으로 건립하였다. 태종 11년(1411)에는 성균관에 예속된 중등교육기관인 4부 학당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곳은 향교와 서원이었다. 그중 향교는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교궁(校宮) 또는 재궁(齋宮)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고려 인종 5년(1127)에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부터 향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교에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가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왕조는 교화정책 가운데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방민을 교육, 교화할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태조 1년(1392)에 각 도의 안렴사에 명하여 지방 곳곳에 향교를 만들게 하였고, 또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 지방관 평가의 기준을 삼는 등 강력한 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성종 때에 이르면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치되었다.

우리 지역에 향교가 보급된 것은 조선 초기 무렵으로 흥해 향교와 청하 향교, 영일향교 그리고 장기향교가 있으며 이들 군현에는 모두 훈도(訓導)가 파견되고 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향교가 쇠퇴하자 사립양반이 중심이 되어 세우기 시작한 사학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향교는 제사기능 위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과거 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기능을 완전 상실하고 단지 문묘에 대한 제사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소, 선조 때는 1백 24개소, 숙종 때에는 각 도 마다 80~90개소를 헤아리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조선전기 영일만권에 있었던 관학인 향교와, 사학인 서원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 2. 향교

### 1) 흥해향교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에서 군(郡)의 서쪽 1리에 있었다고 하는 흥해 향교는 현재 포항시내에서 영덕방향으로 가는 7번 국도변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향교산에 있으며, 조선 태조 7년(1398)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나 연혁에 관한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정진백(鄭鎭佰, 1897~1924)의 문집인 《석농집(石農集)》의 <흥해향교중수기(興海鄕校重修記)>에서 “본 군 향교의 설치는 건국으로부터 창건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이에 향교가 창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흥해 지역의 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흥해는 본래 퇴화군(退火郡)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전국적인 군현 개편에 즈음하여 의창군으로 바뀌었다가 고려 초에 현재의 이름인 흥해군으로 고쳐졌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경주의 속읍이 된 후 명종 때 감무가 설치됨으로써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공민왕 때 접어들어 국사 배천희의 고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된 후 조선조에 이르러서도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미 고려 말 일읍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해 갖고 있었으므로 조선 태조 조에 지방 향교를 전국적으로 창설할 무렵에 흥해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백이 본 군 향교 설치는 ‘자건국이창(自建國而創)’이라 하였던 것이다.

현재 흥해 향교에는 조선후기에 작성된 《석전의궤(釋奠儀軌)》가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향교 중수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가 있다. 내용은 정조 즉위년(1776) 12월 24일의 <대성전 중수시고유문(大成殿 重修時告由文)>과 이듬해 3월 21일의 <환안고유문(還安告由文)>이 실려 있다. 거기에 의하면 이 때 퇴락된 대성전의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순조 3년(1803) 윤 2월에 동·서무의 퇴락으로 인한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이안제(移安祭)가 행해졌고, 4월 3일 환안제(還安祭)를 행하였다. 당시 군수는 이득강(李得江)이다. 또 순조 30년(1830년) 대성전에 비가 새어 기와를 다시 이었으며, 이때 역시 이안제(3월 15일)와 환안제(3월 20일)가 각기 거행되었다고 한다.

《석농집(石農集)》에 의하면 흥해향교는 1920년 정전 및 문루의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일향의 장보(章甫)가 각자 의연금을 내어 교전(校田)에 보태어 기백원을 만들어 향교를 일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건물은 6.25전쟁 때 소실되기 전까지는 대성전(大成殿), 서무(西廡), 동무(東廡), 명륜당(明倫堂), 서재(西齋), 동재(東齋), 수복실(守僕室), 태화루(太和樓) 등을 갖춘 총 99

칸 규모였으나, 6.25전쟁 때 대성전과 동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소실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 명륜당, 수복실을 그리고 뒤이어 동무, 서무를 새로 지었으며, 1996년에는 태화루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지어 어느 정도 옛 모습을 되찾았다.

흥해향교에는 <鄉校誌發刊記>, <鄉校重修記>, <太和樓復元上樑文>, <太和樓 復元韻> 외에 14매의 현판이 있다.

향교 주위에는 경북지정문화재기념물 제21호인 50년에서 100여 년 된 이팝나무 30여 그루가 집단 군락을 이루어 있어 매년 늦은 봄이면 흰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장관을 이룬다. 또 가을이면 보랏빛 열매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동문선 제17권에는 흥해 향교와 관련한 박치안(朴致安)이 쓴 ‘흥해(興海) 향교(鄉校) 달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거문고를 들으며’라는 칠언율시(七言律詩)가 실려 있다.

### 興海鄉校月夜聞老妓彈琴

七寶房中歌舞時	옛날 칠보 방안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那知白髮老荒陲	어이 알았으리 이 벽지에 와 늙을 줄을
無金可買長門賦	돈 없으니 장문부를 살 길이 없고
有夢空傳錦字詩	꿈에나 금자시를 헛되게 전하누나
珠淚幾霑吳練袖	눈물은 몇번이나 오나라 비단 소매를 적시었던가
薰香猶濕越羅衣	훈향은 아직도 월나라 비단 치마에 배어있네
夜深窓月絃聲苦	깊은 밤 창에 달을 밝은데 거문고 가락 구슬픈 것은
只恨平生無子期	평생에 자기같이 곡조 아는 이 없음을 한하는 듯 하구나

## 2) 청하향교

청하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청하면 고현리에서 창건하였다가 오늘날의 서정 1리(옛 금정리)뒤 산기슭 쇠밭골(牛足谷)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현존하는 사료는 전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성종조 ‘一邑一校, 一官一校’의 원칙에 의해 주읍으로써 위치를 가지게 된 고을에 향교가 설립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하향교 역시 늦어도 성종조 이전에 향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학교조에 현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 후 숙종 39년(1713년)에 현감 노세환(盧世煥)이 현청이 있던 현재의 덕성 2리 190번지로 옮겨 공사에 착수한 후, 숙종 42년인 1716년에 대성전, 명륜당, 동재, 2층 천화루, 신삼문, 열호재 등을 완성하여 준공하였다.

대성전(大成殿) 서편 열호재(悅乎齋)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향교 뒤 성지 나무숲에 공산군 탱크 부대가 주둔하는 바람에 미군의 함포사격을 받아 천화루가 파손되었으나 1964년에 명륜당과 함께 중건하였고, 연무정도 이때 불타 없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향교 뜰에 연무정비 반쪽과 현감 임택고열호제창건비, 현감 노세환흥학비, 그리고 향교 앞에 6.25전쟁 이후 새로 만든 하마비가 서 있으며, <大成殿重修記>, <東齋重建事實>, <關化樓重建事實>, <清河鄉校明倫堂重修記文> 외 9개의 현판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봄,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냈으나 요즘에는 8월 중 하루 날을 잡아서 인근의 여러 문중이 참여하여 제사(향사)를 지내고 있다.

### 3) 영일향교

영일향교는 현재 연일향교(延日鄉校)로 불리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현의 북쪽으로 5리에 있었다고 한다. 조선 태조7년(1398년)에 현재 남구 장흥동에 창건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연혁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성권(趙聖權)의 대성전 상량문에도 처음 장흥(長興)에 건립되었다고 적고 있다. 장흥에 건립된 영일향교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고 숙종 때 대송면 성좌동(聖佐洞, 南城)으로 이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읍치 및 성좌의 향교는 지대가 낮아 물에 자주 잠기어 이읍이교(移邑移校)의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고종8년(1870) 현감 원우상에 의하여 현청이 대잠동으로 옮김에 따라 현 위치인 포함시 남구 효자동 407번지로 옮겨 새로 지었다고 한다.

연일향교에는 <鄉校副齋先進稷案序>, <鄉校移建記>, <鄉校重修記>, <延日鄉校重修記>와 6매의 현판이 있다. 일제 때는 명륜 학교로 사용된 바 있고 1983년 2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포함시에 편입되어 보존되고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현과 송조의 2성현 우리나라 현철 18분의 위해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하루 날을 잡아서 향제를 올리고 있다. 특히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맛배 지붕. 겹처마의 집으로 주심포계 외일출목의 조선후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물로, 1985년 8월 경북문화재 자료 1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 4) 장기향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의 남쪽 2리에 있다고 전해지는 장기 향교는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조선 태종 5년(1405년) 명장리(明章里, 교동) 창건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정확한 연대를 확인 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방경, 서극인, 이대임, 이눌 등이 향교에 봉안해 오던 위패

를 용암석굴(龍岩石窟)에 권안(權安)시키고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건물은 소실되었으나 위패만은 무사할 수 있었다.

병화로 소실된 향교를 임란 후인 선조 33년(1600년)에 새로 지을 때는 덕계 임재화(林再華)가 대대로 살던 자기 집터를 희사하여 옮겨 짓게 했다고 한다. 정조 9년(1785년)에 이르러 지방의 유교의 정신과 학문을 부흥하기 위해 현감 황익진(黃翼振)이 오늘날의 장기초등학교 동편(마현리)에 옮겨 새로 지었다.

《경상도읍지》, 《장기읍지》에서 구읍치(舊邑置)는 현 남쪽 2리에 있고, 현의 동쪽 2리에 구(舊) 향교가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931년에 군수 김영수가 향사(鄉士)들과 함께 읍성 내에 있던 구 장기현 객관을 수리하여 명륜당을 만들고 대성전을 새로 건립하여 위패를 옮겨 안치하였다.

장기향교는 인근의 여러 문중에서 참가하여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제사(향사)를 지내 오다가, 최근에 와서 8월 중 하루 날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 향교에는 대성전, 명륜당, 신삼문, 동재, 장경각, 대문 등의 건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향교 앞의 하마비를 새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장기향교에는 대성전, 명륜당 외에 <장기향교현판문>, <향교중건기> 등이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慶尙北道, 《慶北鄉校誌》, 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91.  
慶尙北道, 《文化財大觀》, 2003.